

4차 산업혁명과 한국바로알리기 데이터 활용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tilization of Data in Understanding Korea Project

정경란(한국학중앙연구원)

차 례

1. 서론
2.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오류 내용
3. 국가별 한국관련 오류내용 및 개선과제
4. 한국바로알리기 향후 과제
5. 결론

■ keyword : 한국바로알리기 | 한국 이미지 | 외국 교과서

1. 서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 산업생산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었다면, 작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산 시스템에 남은 데이터들이 유의미하게 되어 빅데이터로써 인간 삶 속의 수많은 관계들을 포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외국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한국 내용 오류를 수정하고 증·신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역사, 지리, 문화를 세계에 바로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 197개국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20~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교과서 분석을 실시해왔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한 국가는 총99개국(중복 분석국 제외), 2,573책이다.<표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매년 외국 교과서를 분석하여, 외교부 및 현지 대사관과 오류정보를 공유하고, 그때 그때마다 시정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10여년 이상 축적된 한국바로알리기 빅데이터는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를 주제별, 유형별,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의 중점 내용들을 재점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표 1. 연도별 외국 교과서 분석현황

연도	국가수	책수	국 가 명(책수)
2003	31	139	남아프리카공화국(1), 대만(2), 덴마크(1), 독일(7), 러시아(2), 말레이시아(1), 멕시코(1), 미국(5), 베트남(4), 벨기에(2), 북한(21), 스웨덴(2), 스위스(1), 스페인(1), 싱가포르(4), 아르헨티나(2), 오스트리아(5), 우루과이(1), 에티오피아(2), 이란(1), 이집트(1), 이탈리아(1), 인도네시아(1), 일본(53), 중국(6), 케냐(1), 터키(1), 파라과이(2), 프랑스(2), 필리핀(3), 호주(2)
2004	12	148	러시아(28), 레바논(1), 서리아(1), 아르헨티나(8), 요르단(2), 우즈베키스탄(3), 인도(2), 이집트(3), 일본(48), 중국(43), 카자흐스탄(8), 쿠웨이트(1)
2005	11	87	말레이시아(4), 베트남(7), 브라질(11), 일본(23), 중국(3), 체코(7), 칠레(6), 태국(6), 폴란드(3), 프랑스(13), 필리핀(4)
2006	20	380	뉴질랜드(10), 대만(94), 독일(18), 러시아(25), 리비아(2), 모로코(2), 미국(14), 사우디 아라비아(2), 수단(2), 아랍에미리트(2), 영국(3), 오만(1), 이라크(2), 이집트(4), 일본(19), 중국(152), 카타르(3), 캐나다(12), 호주(5), 몽골(8)
2007	24	326	그리스(2), 덴마크(2), 레바논(2), 멕시코(10), 미국(20), 스웨덴(2), 싱가포르(32), 영국(10), 우루과이(5), 우즈베키스탄(6), 이스라엘(4), 이탈리아(9), 인도네시아(11), 일본(38), 중국(106), 체코(3), 칠레(2), 쿠웨이트(4), 카자흐스탄(5), 태국(16), 파라과이(4), 프랑스(3), 튀니지(1), 홍콩(29), 미국교과서 한국관련 집필자 분석
2008	14	68	남아프리카공화국(4), 브라질(12), 스위스(2), 스페인(5), 아르헨티나(5), 요르단(2), 이란(4), 이스라엘(2), 인도(5), 터키(7), 튀니지(2), 필리핀(10), 호주(7), 이집트(1)
2009	15	84	일본(13), 카자흐스탄(3), 타지키스탄(2), 파키스탄(5), 중국(8), 베트남(5), 말레이시아(10), 러시아(10), 프랑스(5), 영국(1), 아제르바이잔(2), 미국(6), 캐나다(4), 멕시코(8), 아르헨티나(2)
2010	20	195	독일(5), 이탈리아(4), 스페인(8), 우루과이(8), 파라과이(13), 케냐(4), 미국(14), 인도(14), 방글라데시(8), 오만(7), 베트남(8), 대만(11), 홍콩(10), 러시아(14), 벨라루스(6), 우즈베키스탄(2), 태국(28), 우크라이나(16), 폴란드(8), 이스라엘(7)
2011	23	197	이탈리아(23), 아일랜드(4), 케냐(3), 몽골(5), 대만(6), 미국(9), 캐나다(4), 러시아(11), 우즈베키스탄(4), 카자흐스탄(7), 몰도바(5), 튀니지(5), 알제리(12), 레바논(2), 베네수엘라(6), 도미니카(8), 에콰도르(13), 헝가리(20), 캄보디아(7), 이라크(11), 멕시코(12), 페루(3), 불가리아(17)
2012	25	252	미국(9), 캐나다(4), 러시아(20), 프랑스(3), 독일(5), 튀니지(5), 몽골(13), 말레이시아(29), 태국(15), 필리핀(4), 타지키스탄(2), 파키스탄(5), 네덜란드(19), 시리아(2), 쿠웨이트(3), 오스트리아(5), 코트디부아르(5), 리투아니아(18), 부탄(3), 온두라스(10), 엘살바도르(10), 콜롬비아(40), 과테말라(6), 세르비아(14), 세네갈(3)
2013	27	249	프랑스(5), 오스트리아(8), 핀란드(11), 터키(5), 체코(9), 니카라과(8), 파나마(4), 아르헨티나(4), 콜롬비아(5), 칠레(6), 네팔(5), 스리랑카(11), 에티오피아(8), 이집트(2), 예멘(6), 슬로바키아(12), 중국(19), 대만(12), 크로아티아(24), 캐나다(14), 호주(11), 뉴질랜드(11), 미국(12), 러시아(7), 우즈베키스탄(16), 타지키스탄(7), 아르메니아(7)
2014	30	448	에콰도르(23), 콜롬비아(24), 파라과이(37), 우루과이(11), 러시아(13), 벨라루스(3), 카자흐스탄(3), 키르기스스탄(13), 미국(21), 캐나다(10), 호주(9), 영국(22), 프랑스(2), 이탈리아(6), 스웨덴(6), 오스트리아(3), 노르웨이(11), 슬로베니아(25), 대만(21), 이스라엘(12), 케냐(43), 남아프리카공화국(12), 카메룬(19), 이란(13), 스페인(28), 가봉(8), 뉴질랜드(0)*, 캄보디아(18), 인도네시아(10), 싱가포르(22) * 뉴질랜드는 현지 교육실터조사를 실시하였음
총계	252	2,573	총 99개국(중복국가 제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AKSR2015-P01)로 수행된 연구임

이 연구는 한국바로알리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7년간 총 80개국, 1,493권의 교과서 내용 중 오류로 발견된 1,379건의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이 외국 교과서에 어떻게 비취졌으며, 어떻게 잘못 기술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며[1], 아울러 한국바로알리기의 개선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80개국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분석대상국

국가분류	국가명	국가수
동북아시아	대만, 몽골, 중국, 홍콩	4
남아시아태평양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12
북미	미국, 캐나다	2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16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9
아프리카중동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세네갈, 알제리,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튀니지	17
총 분석국가수		80

2.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오류 내용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는 크게 주제별, 유형별, 분야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오류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제별 오류내용

외국 교과서의 한국내용과 관련하여 주제별로는 크게 16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오류 건수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한 주제는 외국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내용 주제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오류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주제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류건수로 외국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내용에 관한 주제건수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향후에는 오류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내용 기술에 대한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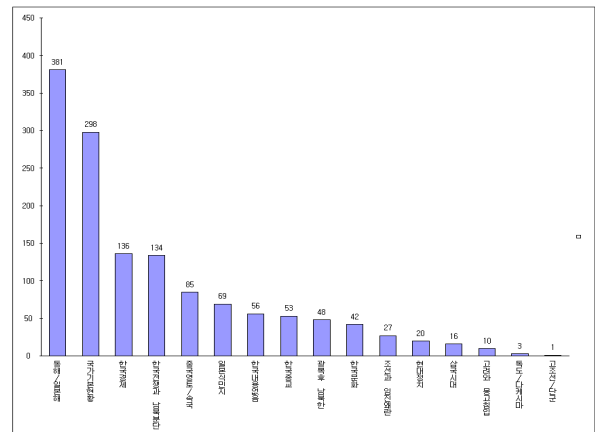
표 3. 주제별 분류 및 오류 건수

연번	주제별 분류	오류 건수
1	고조선/단군	1
2	삼국시대	16
3	고려와 몽고침입	10
4	조선과 임진왜란	27
5	일본식민지	69
6	광복후 남북한	48
7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134
8	국가기본현황	298
9	현대정치	20
10	한국경제	136
11	한국문화	42
12	한국종교	53
13	중국영토/속국	85
14	동해/일본해	381
15	독도/다케시마	3
16	한국내용없음	56
총 오류건수		1,379

오류 주제 중 ‘한국내용없음’도 주제로 설정하였는데, 교과서내용상 일본, 중국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국내용이 빠져거나, 꼭 수록되어야하는 기술 부분에 한국내용이 없는 경우를 오류로 보아 오류 주제로 설정하였다.

주제별 오류건수를 차트로 그려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별 오류건수 차트



주제별로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381건)가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의 국가기본통계 및 현황을 잘못 기술한 경우(298건)가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많이 기술되었으나, 역시 통계 및 현황이 잘못 기술된 경우(136건), 한국전쟁과 남북분단(134건), 한반도가 중국영토이거나 중국속국이라는 내용(85건), 일본식민지에 대해 잘못된 기술(69건)이 많았다. 그 외 중국 일본은 기술되어 있으나 한국내용이 기술이 안 되어 한국내용이

들어 가야 할 부분(56건)이 있었고, 한국의 종교에 대해 잘못 기술된 경우(53건), 광복후 남북한 오류(48건), 한 국문화내용 오류(42건) 등 다양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별 오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고조선/단군

고조선과 단군신화에 대한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는 필리핀교과서 1권이다. 여기서는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있다.

- (필리핀교과서) 환웅은 아름다운 여자로 변한 늑대와 결합하여 한국 최초의 왕국인 고조선을 설립했던 단군왕검을 낳았다.[2] → 늑대를 곰으로 수정해야 한다.

②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대한 오류 기록은 16건으로 역사가 왜곡되거나, 연도가 잘못 표시되어 있고, 객관적인 서술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 (미국교과서) 초기 한국 국가들은 기원후 4세기에서 7세기경에 세워졌으며 이 국가들 모두 지배자의 호칭을 중국 용어를 따 왕이라고 했다. ... 신라(688-900), 고려(918-1392), 조선(Yi, 1392-1910)로 교체되는 왕조 하에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조공 제도에 참여하며 정치적 독립을 지켰다.[3] → 신라, 고구려, 백제는 기원전 1세기부터 초기 국가의 형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기원후 4세기를 기원전 1세기로 수정해야 한다. 삼국 통일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라 부르며 삼국시대의 신라와 구분한다. '신라(688-900)' 을 '통일 신라(668-935)'로 수정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그 후 신라의 통치자들은 압록강 일대를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을 몰아내었다. 거만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의 조공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에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던 일본 식민지들을 척결했다.[4] →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고려와 몽고침입

몽고와 고려침입의 오류 10건으로 부정확한 연대·내용, 역사왜곡 등이 서술되어 있다.

- (예멘교과서)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은 1209년 이웃국가인 투르크 제국을 침략했고, 1211년 중국황실을 공격했다. 1215년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입성했고 1219년 한국을 침략했다.[5] → 몽골이 고려를 1차 침략한 것은 1231년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 (미국교과서) 고려는 침략을 막아내며, 400년간 명맥을 이었다. 이웃 중국에 강력한 왕조가 부재한 덕이 컸다.[4] → 한국은 고려시대에도 요(Khitan)와 금(Jin) 같은 강력한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며 국가를 유지해갔다. "이웃 중국에 강력한 왕조가 부재한 덕이 컸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④ 조선과 임진왜란

조선과 임진왜란의 오류 내용은 26건으로 한중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다.

- (미국교과서) 1894년 청나라는 일본과 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함으로써 중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한국에 대한 종주권(suzerainty)을 위협했기 때문이다.[6] →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받쳤지만 정치적 독립을 유지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한국에 대한 종주권"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 (스리랑카교과서) 이 전쟁(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패했다. (중략) 일본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7] →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⑤ 일본식민지

일본식민지 오류는 69건으로 일본이 아닌 영국식민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일본식민지 연대, 내용 등이 잘못 기술된 경우가 많다.

- (콜롬비아교과서) 한반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표시되어 있고, 1945년에 분단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8] →

일본의 식민지로 수정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지도 22.4: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해외 확장>에 한국은 일본이 1908년에 획득한(territorial acquisitions) 것으로 나온다.[9]→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이 일어난 해는 1910년이다.

⑥ 광복후 남북한

광복후 남북한에 대한 오류는 48건으로 남북한의 독립 연도, 분단내용 등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 (아르헨티나교과서) 남한과 북한이 1948년에 독립하여 분단되었다.[10] → 남한과 북한의 독립시기는 1945년이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냉전시대의 연대 형성에서 한반도는 공산주의에 가담한 여타국가로 표시되어있다.[11]→ 공산주의에 가담한 국가는 북한으로 수정해야 한다(남한은 삭제해야 한다).

⑦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오류는 134건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잘못된 기술, 38선과 휴전선을 혼동, UN 파병국 및 파병내용 등에서 잘못 기술된 내용이 많다.

- (베트남교과서) 조선(Trieu Tien)전쟁(1950~1953)으로 기술되어 있다.[12]→ 조선전쟁을 한국전쟁 또는 6·25로 수정해야 한다.
- (이탈리아교과서) 두 국가 사이의 국경을 38선으로 확인한다.[13]→38선을 ‘휴전선’으로 수정한다.
- (인도교과서) 미국과 14개의 다른 나라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국민정부(대만),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파나마, 필리핀, 태국, 영국)이 군대를 보냈다.[14]→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16개국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필리핀, 태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디오피아, 룩셈부르크이다.

⑧ 국가기본현황

국가기본현황 오류는 298건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오류 다음으로 많은 오류건수이다. 국가기본현황으로는 국민소득, 인구, 면적, 강수량 등 국가의 기본적인 통

계 및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매년 최신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새롭게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최신자료를 해외에 보내어 한국의 현황이 바로 수록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온두라스교과서) 남한 면적(km²):98,480, 인구: 2,602,713명 인구밀도: 496명/km², 1인당 국민소득: 20,400달러[15]→(2010년 기준) 면적 99,720km², 인구 49,410,000명, 인구밀도 485.6명/km²(그러나 최신 통계로 수정 요구해야 함.)
- (인도교과서) 한국, 필리핀과 같은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다.[16]→한국을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
- (슬로베니아교과서) 전 세계 국가들의 UN 가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에서 한국의 UN 가입이 1991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다.[17]→한국을 UN 가입국으로 표시해야 한다.
- (대만교과서) 지도 7-8 전세계 인터넷 사용률 분포도(자료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남한 인터넷 사용률 35%이상이다.[18]→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KISA ISIS) 통계에 의하면, 2013년 5월 기준,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만 3세이상) 40,080천명임. 또한 인터넷 이용률은 82.1%에 이르고 있다.

⑨ 현대정치

현대정치에 있어서 남북한관계, 정치현황, 선거 등의 오류가 20건 나타난다.

- (카자흐스탄교과서) 1960년 4월 27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서에 서명했고 나라를 떠났다.[19] → 4월 27일이 아니고 4월 26일로 수정해야 한다.
- (키르기스스탄교과서) 1987년 짐바브웨 총리와 북한의 김일성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20] → ‘김일성’을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김일성 “국방위원장”, “서기”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⑩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오류는 136건으로 남북한을 혼동하여 기술하거나 한국경제에 대해 잘못 기술된 내용이 많다.

- (이탈리아교과서)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북한,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이다.[21]→북한을 남한으로 수정해야 한다.
- (멕시코교과서) 휴대 전화부분에서 선두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다.[22]→ 현재 한국은 삼성, LG의 휴대폰과 빠른 통신망으로 휴대 전화의 강국이므로, 관련서술에서 ‘한국(Corea)’도 추가해야 한다.
- (오스트리아교과서) (지도) Nike 본사 및 생산 공장이 있는 국가들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23]→Nike 생산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

⑪ 한국문화

한국문화에 대한 오류는 42건으로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와 동일시되거나 중국문화영향으로 기록되고 있다.

- (미국교과서) 이런 수준의 사회에서 일본의 여성들은 대체로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재혼 금지, 외출 제한, 전족 등 중국 유교 문화의 보다 억압적인 특징을 피할 수 있었다.[24]→한국은 전족을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 (필리핀교과서) 중국 문화는 타이완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나라들이 한때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25]→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추진되었으며 상호 예측된 관계가 아니었음. 중국은 한반도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직접지배를 의도하지 않았고, 한반도 국가도 청에 대한 조공을 통해 청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내치외교의 자주공간을 보장받았다. “한때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
- (콜롬비아교과서) <표: 언어의 다양성>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계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어, 에트루리아어, 수메르어, 수단어와 함께 고립된 언어에 포함되어 있다.[26] →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계에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⑫ 한국종교

한국종교에 대한 오류는 53건으로 한국이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국가로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중국과 같은 종교국가로 표시되어 있다.

- (콜롬비아교과서) 한반도는 유교로 표시되어 있다.[27]→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남한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이므로 다양하다고 표시해야 하나, 해당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를 함께 표시하거나 ‘다양한 종교’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프랑스교과서) <지도> 세계의 종교: 한국의 종교를 불교로 표시하고 있다.[28]→한국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이므로 다양하다고 표시해야 하나, 해당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를 함께 표시 하거나 ‘다양한 종교’ 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지도: 세계 종교 지도] 한국은 중국 종교 국가(Chinese Religions)로 표기되어 있다.[29] → 한국의 종교인구를 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따로 표시해야 한다.

⑬ 중국영토/속국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라거나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잘못된 기록이 85건에 이른다. 이는 역사왜곡에 해당하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 근거를 토대로 오류시정 시급하다.

- (미국교과서) 한국은 1644년까지는 만주국의 지배 아래 들어온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30]→ 한국은 청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고 사대를 했지만 독립을 유지했다. 한반도를 청나라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핀란드교과서) 일본은 1500년대 말에 한국을 점령하려 했었고, 1600년대 중반에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다.[31]→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할 때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서술하였다.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⑭ 동해/일본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381건으로 주제별 오류건수중 제일 많다. 동해를 일본해로 수정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주어야 한다.

- (미국교과서)<지도: 중국과 한국>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었다.[32]→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최소한 동해(일본해)로 수정해야 한다.

⑮ 독도/다케시마

2007년에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어 있다가 2013년에 이르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바뀌었다. 독도 오류는 3건으로 오류시정이 시급하다.

- (독일교과서) (지도)독도/다케시마가 병기되어 있다.[33]→ 독도 단독으로 표기해야 한다.
- (이스라엘교과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34]→ 독도로 표기해야 한다.

⑯ 한국내용없음

한국내용이 서술되어야 하는 교과서나 기술부분이 56건이다. 중국, 일본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내용은 없는 교과서가 많다. 신설 노력이 필요하다.

- (스리랑카교과서) 단순히 국명만 언급되어 있다.[35] → 스리랑카 및 중국·일본·인도를 중심으로 한 근현대사 교과서이다. 일본과 중국의 발흥에 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 관련 서술에서 단순히 국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
- (키르기스스탄교과서) 중세의 아시아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한국에 대한 내용은 없다.[36] → 아시아 국가의 중세사의 설명에 중국, 일본, 인도와 함께 한국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주제별 오류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총 분석국가 80개국 중 61개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하고 있다. 이 오류 수정은 외교부 영토해양과와 동북아역사재단, IHO(국제수로기구) 등 정부, 학계, 민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동해로 표기되어야 한다.

2번째로 국가기본현황 오류가 많은데, 56개국에서 한국의 인구, 평균수명, 국민소득, 민족구성, 면적, 강수량, 기온, 식생, 이주민, 출생율, 인간개발지수, 공식언어, 종교, 금속자원, 운송, 관광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매년 새로운 한국기본정보를 작성하여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3번째로 한국경제 오류가 많다. 40개국에서 한국경제

를 잘못 알고 있으며,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재벌, 수출, 수입, 휴대폰계약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아시아의 호랑이, 외채, 조선산업, 현대, 삼성 등 잘못된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외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중국영토/속국, 일본식민지의 순으로 오류가 많으나, 한국에 관한 표준정보를 매년 통계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전 세계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유형별 오류내용

유형별 오류내용은 9가지를 들 수 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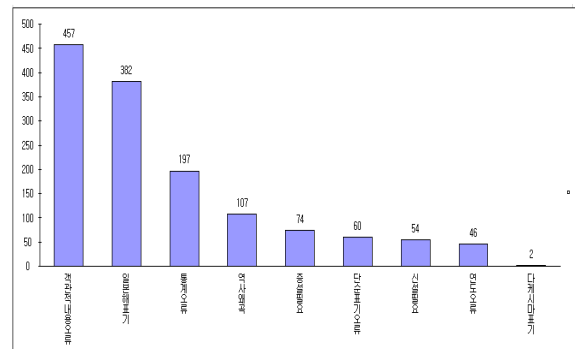
표 5. 유형별 분류 및 오류 건수

연번	유형별 분류	오류 건수
1	객관적내용오류	457
2	단순표기오류	60
3	역사왜곡	107
4	통계오류	197
5	연도오류	46
6	일본해표기	382
7	다케시마표기	2
8	증설필요	74
9	신설필요	54
총 오류 건수		1,379

증설과 신설의 경우는 오류로 볼 수는 없으나, 한국내용이 부실하거나,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점을 오류로 판단하여 오류분류에 포함하였다.

유형에 따른 오류건수를 차트로 그려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유형별 오류 건수 차트



유형별로 객관적 내용 오류(457건)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해표기(382건), 통계오류(197건), 역사왜곡

(107건), 증설필요(74건), 단순표기오류(60건), 신설필요(54건), 연도오류(46건), 다케시마표기(2건) 등의 오류 순으로 나타난다. 오류 유형이 많이 나타난 순서대로 그 오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객관적 내용 오류

객관적 내용 오류는 총 45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그 오류는 화살표(→) 내용으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이집트교과서) 불교가 주요한 신앙이고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있다.[37] → 한국에는 종교인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그 중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주를 이루며 유교, 이슬람교 등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 (인도교과서) 국제연합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10개국의 병력이 연합한 유엔군을 파견했다.[38] →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는 16개국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필리핀, 태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디오피아,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교과서) <지도> 1992년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특성 중 남한: 제3세계, 저소득국가(1인당 675달러 이하)[39] → 1992년 한국의 국민총소득은 7,714달러이므로 7,714달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표시해야 하며, 2008년도 교과서이므로 최근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러시아교과서) <남한의 발전> 정부는 일본의 경험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다.[40] → 해당문장은 ‘남한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멕시코교과서) 휴대 전화부분에서 선두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다.[41] → 현재 한국은 삼성, LG의 휴대폰과 빠른 통신망으로 휴대전화의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관련서술에서 ‘한국(Corea)’도 추가해야 함

그 외 대한민국을 동남아시아로 분류(인도교과서[42]), 고구려를 고려로 기술(필리핀[43])하며, 동의보감의 서술 및 출판연대를 잘못 기술(대만교과서[44]) 하는 등 많은 객관적 내용 오류가 발견되었다.

② 단순표기 오류

단순표기 오류는 총 60건이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베트남교과서) 조선전쟁으로 표기되어 있다.[45]→ 한국전쟁으로 수정해야 한다.
- (대만교과서) 수·당 때 한반도에는 고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다[46] → 고려를 고구려로 수정해야 한다.
- (이탈리아교과서)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북한,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이다[47] → 북한을 남한으로 수정해야 한다.
- (러시아교과서) 박남준으로 표기하였다.[48]→ 백남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단순표기 오류는 인명, 지명, 사건명 등 단순한 오기 또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내용에 대한 단순 표기 오류가 해당된다.

③ 역사왜곡

역사왜곡은 총 107건으로 한사군, 임나일본부,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이거나 중국의 속국, 몽골제국에 속해있다는 내용들로 다음과 같다.

- (미국교과서) 고대 중국의 국경을 나타낸 지도에서 동남부 일부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서기 200년경의 한 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49] → 한의 영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야 한다.
- (미국교과서) 한국은 1644년까지는 만주국의 지배 아래 들어온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50] → 한반도를 청나라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미국교과서) 결국 한반도에는 세 개의 왕국이 생겨났다. 북쪽의 고구려, 서남부의 백제, 동남부의 신라였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토 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남부 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는지도 모른다.[4]→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역사연구에서 폐기된 학설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캐나다교과서)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역사와 시를 썼으며, 예술가들은 중국의 원칙들을 따라서 풍경화를 창작하였다.[51]→ 이 내용

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스페인교과서) 1789년 한국은 중국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52]→ 1789년 당시 조선시대였으므로, 해당 표시는 삭제해야 한다.

역사오류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료에 의해 작성된 교과서가 아닌 중국과 일본 측의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올바른 역사가 서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④ 통계오류

통계오류는 197건으로 우리나라의 기본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류가 많으며, 한국경제통계, 종교인 분포 등의 오류가 많다. 통계오류는 다음과 같다.

- (인도교과서) 한국의 종교는 유교이다.[53] → 한국인이 믿는 주요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이탈리아교과서) <지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서버 수: 한국은 자료가 없는 지역으로 표시되었다.[54]→ 이 지도에서 한국을 '200 이상'인 지역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예멘교과서) 세계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지도에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이 250-500mm로 표시되어 있다.[55]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1,500mm이므로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 (스페인교과서) <표> 면적 99,373km², 총인구(2009년) 48,332,820, 국내총생산(2008년) 9,291억 2,372만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2008년) 19,223.45달러 [56] → 2013년 교과서인데 2008년 현황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면적 100,266km², 총인구 50,219,669, 국내총생산 10억\$, 1인당 국내총생산 25,973달러이다.

⑤ 연도오류

연도오류는 46건으로 고려의 통일연대, 일본식민지 연대, 한국이 독립한 연대, 한국전쟁 연대 등 연대가 잘못 기술된 경우들이다.

- (미국교과서) 후백제의 멸망연도와 고려의 통일연도

가 각각 934, 935로 기록되었다.[57]

- (파나마교과서) 일본으로부터의 한반도의 탈식민지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58] →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벗어났으므로 연도표기를 수정해야 한다.
- (대만교과서) 1955~1964년에 독립한 국가에 한국 포함되어 있다.[59]→ 한국이 독립한 해는 1945년이다.
- (파테말라교과서) (연대표) 1954년 한국전쟁의 종결되었다.[60] → 1953년으로 수정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종결되었다.

⑥ 일본해 표기

일본해 표기 오류는 총 382건으로 객관적 내용 오류(457건) 다음으로 많다. 점차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늘어가고는 있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아래의 교과서 내용 중 일본해는 동해로 표기하거나 동해(일본해)로 수정되어야 한다.

- (러시아교과서) <지도: 1941-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과 아시아 군사작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었다.[61]
- (캐나다교과서) <지도: 지도의 부식 및 지형조성>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었다.[62]

⑦ 다케시마 표기

다케시마 표기는 2건이 보이는데, 독도가 다케시마로 병기되어 있거나,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되어 있다.

- (독일교과서) (지도)독도/다케 표기로 병기되어 있다.[63] → 독도 단독표기 해야 한다.
- (이스라엘교과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64] → 다케시마를 독도로 표기해야 한다.

⑧ 증설필요

증설이 필요한 건수는 74건이다. 체코의 경우에는 한국관련 내용이 1910년 한일합방 밖에 없으며, 스리랑카에서는 단순히 한국 국명만 언급되어 내용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듯 한국 내용이 소략한 경우 한국의 발전상을 포함한 한국내용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 (체코교과서) 1910년 한일합방.[65] → 중등 과정용 역사 교과서로 한국 관련 내용은 1910년 한일합방이 유일하다. 이후 식민지, 한국전쟁 등 역사의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역사적 발자취에 대한 내용 증설이 필요하다.
- (스리랑카교과서) 단순 국명 언급.[66] → 세계의 자연·인문지리 교과서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국명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일본은 1/2페이지 가량을 할애하여 일본의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단편적으로 언급되지만 한국 산업의 특징에 관한 내용 증설이 필요하다.
- (미국교과서) <표 8.4 학업성취도 순위> 상위 4 국가 : 일본, 한국, 핀란드, 호주[67] → 학업 성취도 2위 국가인 한국의 교육(교육열, 대학진학률, 학습 과목 등)에 관한 추가 서술을 권장한다.

⑨ 신설필요

한국관련 내용이 서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한국내용이 신설되어야 할 곳이 54건이다.

- (캐나다교과서) 한국관련 없음.[68] → 한국 관련 내용이 없는 인문지리 교과서로, 1단원 세계의 인류 패턴, 2단원 세계의 여러 경제체제, 3단원 이동, 이주,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2단원의 제 4장 세계의 다양한 경제 부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내용 신설이 필요하며, 제 6장의 캐나다의 국제무역에서 한국과의 무역현황을 서술해주는 내용 신설을 권장한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금속자원>[69] → 해당 페이지의 주제도에는 한국 관련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다. 각 주제에 맞는 한국의 정보가 지도상에 추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네팔교과서) 한국관련 내용이 없다.[70] → 네팔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는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 (크로아티아교과서) 한국관련 내용이 없다.[71] → 한국 관련 내용이 없는 역사 교과서로, 유럽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인본주의-인류의 새로운 사상’과 관련하여 인본주의의 확산과 과학 및 문화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요하네스 쿠텐베르크의 발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에 200년 앞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활자를 이용한 출간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

유형별 오류에서는 객관적 내용 오류가 가장 많았다. 총 분석국가 80개국 중 64개국이 한국전쟁 후 남북 분단선인 휴전선을 38선으로 기록한다던지, 일본식민지를 스페인식민지, 영국식민지로 기록하거나 남북한을 혼동하여 서술하는 등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오류가 많다.

2번째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많고, 3번째로는 통계오류가 많다. 39개국에서 인구, 면적 등 국가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통계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그 외 중국의 영토 또는 속국이라는 역사왜곡과, 중국·일본에 대한 기술을 많으나, 한국내용이 없거나, 매우 소략한 경우 증신설이 필요하며, 백남준을 박남준으로 표기하는 등의 단순표기오류가 많으므로 한국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세계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3) 시대별 오류 내용

외국교과서의 오류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선사 는 고조선 등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 이전의 시대이고,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통일신라까지 고려 성립이 전이다. 고려, 조선,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근대로 하였고, 1945년 이후는 현대, 여러 시대를 걸치는 내용은 통시대로 분류하였다. 시대별 분류 및 오류건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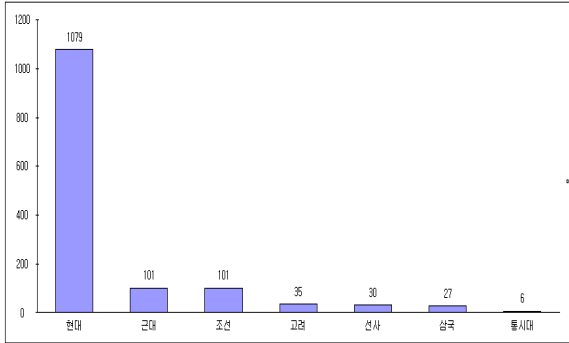
표 7. 시대별 오류 및 오류 건수

연번	시대별 분류	오류 건수
1	선사	30
2	삼국	27
3	고려	35
4	조선	101
5	근대	101
6	현대	1079
7	통시대	6
	총 오류건수	1,379

시대적으로 오류가 가장 많은 시대순으로 정리해보면 현대(1079건) → 근대(101건), 조선(101건) → 고려(35

건)→선사(30건)→삼국(27건)→통시대(6건) 순이다. 이를 차트로 나타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시대별 오류 건수 차트



① 선사

선사의 경우 오류내용은 한반도가 한나라 지배하에 있거나 중국영토이거나 중국속국이었던 오류가 대다수이다.

- (캐나다교과서)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한나라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72]→한 제국의 영역 표시를 한반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 삼국

삼국의 오류내용에서도 앞서 유형별 오류내용 중 역사 왜곡에서 야마토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한반도에 식민지를 건설했는지 모른다는 내용들과 삼국시대의 연도 오류, 불교 공인한 해 등의 오류들이 발견된다.

- (독일교과서) 668년 만주와 한국은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73]→ 해당내용은 오류로 삭제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불교는 5세기 후반 신라에도 소개되었을지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527년에야 인정을 받았다.[74]→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해는 528년이다.

③ 고려

고려 때에도 한반도가 원나라, 금나라, 몽골 등의 영토였다는 오류내용이 주를 이룬다.

- (미국교과서) 지도에 한반도 전체가 몽골제국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었다.[4]→몽골의 내정간섭

을 받았던 시기에도 고려는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몽골(원)과 한국(고려)의 국경선을 표시하고, 몽골의 영역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고려’라는 정확한 국명을 표기해야 한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중세 아시아의 제국들> 한국은 몽골제국으로 표시되었다.[75]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가 존재했으므로, 몽골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반도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려(Goryeo)’ 표기를 추가해야 한다.

④ 조선

조선시대에도 한반도가 청나라, 명나라 등의 영토로 표시되었고, 1910년에 일본식민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이미 일본이 정복한 나라로 기술되는 등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의 속국 또는 영토 오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페루교과서) <19세기 후반 아시아> 한국은 일본이 정복한 나라로 표시되어 있다.[76] → 해당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한국이 청나라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77]→ 한국은 청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고 사대를 했지만 독립을 유지했다. 한반도를 청나라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스페인교과서) 한국은 1870년까지 일본제국의 영토로 표시되었다.[78] → 1870년 당시 조선시대였으므로, 해당 표시는 삭제해야 한다.

⑤ 근대

일본식민지의 연대, 내용 기술 오류가 많다.

- (노르웨이교과서) 한국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다.[79]→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10년부터이다. 1920년을 1910년으로 수정해야 한다.
- (멕시코교과서) 19세기 말 한국은 일본의 식민제국에 속해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80]→ 해당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태조 이성계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9년 지속되었다.

⑥ 현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인구, 면적, 강수량 등 국가기본현황이 최근 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오자, 통계오류, 현대의 한국 상황이 외국교과서에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총 오류건수 1379건 중 1080건이 현대와 관련된 오류이므로 국가이미지 차원에서 현대의 한국을 바로알리는 방법, 내용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2014년에 출판된 외국 교과서에 한국 종교가 불교, 유교, 도교라던지, 젠주도(제주도의 오기), 남운백(백남준의 오기), 판문점(판문점의 오기) 등의 오자는 바로 수정 요구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 (슬로베니아교과서) 한국의 해당 정보가 불교(Budisti) 및 유교(Konfucionosti), 도교(Daoisti)로 표시되어 있다.[81]→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고 수정 표시 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교과서) <지도 :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및 인도차이나 국가> 판문전, 제주도로 표기하였다.[82] → 판문점, 제주도로 수정해야 한다.

시대별 오류에서는 현대의 오류(총 1,379건 중 1,079건)가 가장 많았다. 총 분석국가 80개국 중 78개국에서 현대 한국의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국토면적, 강수량, 인구밀도 등의 기본 정보와 언어, 자유선거, 관광객, 인터넷 등 현재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2번째로 조선(101건)과 근대(101건)로, 중국의 속국이거나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과 일본식민지에 대한 오류가 많았다. 그 외 고려, 삼국, 선사에 대한 오류는 적었으나, 이는 실제 오류가 적어서가 아니라, 서술자체가 매우 소략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시대별로 현대의 오류가 78%에 해당하므로, 현대 한국에 대한 정확한 기술내용 전달과 함께 근대, 조선 등의 역사시대에 대한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4) 분야별 오류 내용

분야는 지리, 정치사회, 경제산업, 과학, 교육언론출판, 언어문학, 역사, 예술체육문화, 의식주생활, 종교철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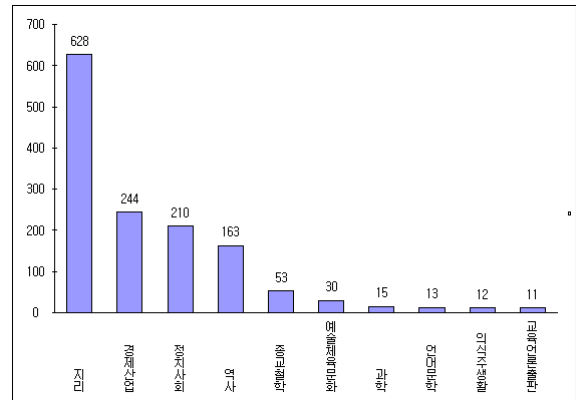
10개로 분류하였다. 분야별 오류건수는 <표 9>와 같다.

표 9. 분야별 분류 및 오류 건수

연번	분야별 분류	오류 건수
1	지리	628
2	정치사회	210
3	경제산업	244
4	과학	15
5	교육언론출판	11
6	언어문학	13
7	역사	163
8	예술체육문화	30
9	의식주생활	12
10	종교철학	53
	총 오류 건수	1,379

분야별 오류 건수를 차트로 나타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분야별 오류건수 차트



분야별로 오류는 지리(628건)가 가장 많고, 경제산업(244건) → 정치사회(210건)→역사(163건) → 종교철학(53건) → 예술체육문화(30건)→ 과학(16건)→언어문학(13건) →의식주생활(12건) →교육언론출판(11건)의 순으로 오류가 많다. 분야별 오류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지리

지리 분야는 총 628건으로 한국을 설명하는 인구, 면적, 강수량, 기후 등과 영토, 영해, 지명이 포함되었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운송 밀집도> 한국의 서울이 세계 주요 항구로 표시되어 있다.[83]→해당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한국의 부산이 세계 주요 항구로 표시되어야 하며, 서울은 세계의 여객들이 많은 공항이 있는 곳으로 수정해야 한다.
- (슬로베니아교과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동해(일본해)로 병기해야 한다.

- (터키교과서) <지도> 흉노의 영역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84]→ 흉노의 영역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야 한다.

② 정치사회

정치사회 분야는 210건으로 한국전쟁, 남북분단, 대통령선거, 현대사회 내용이 포함되었다.

- (페루교과서) 지도에서 한국전쟁을 1850-1863로 표시하였다.[85]→ 한국전쟁의 연도를 1950-1953으로 수정표기 해야 한다.
- (미국교과서) 1980년 전두환 장군(1931~)이 정권을 거머쥐었다. 새 정권은 전임정부처럼 권위주의적이었고, 1987년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한 학생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발했다. 1989년 마침내 총선이 치러져 한국은 민간인의 통치를 되찾았다.[86]→ 한국은 1987년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여 민주주의를 진작시켰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인 출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비군인 출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민간인 통치를 회복했다.

③ 경제산업

경제산업은 244건으로 OCED가입, 국내총생산, 수출, 수입, 등 한국 경제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세계 경제블록과 무역의 흐름> 한반도는 OECD가 아닌 다른 경제 블록에 포함되는 국가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무역흐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87]→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남한은 OECD가입국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으므로, 남한만 표시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무역 흐름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 (캐나다교과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30달러이다.[88] →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338달러(2015년 현재)이다.

④ 과학

과학 분야는 15건으로 인터넷, 의료, 에너지가 포함된다.

- (대만교과서) <지도 7-8> 전세계 인터넷 사용률 분포도에서 남한은 인터넷 사용률 35%이상이다.[18] → 인터넷 이용률은 82.1%에 이르고 있다.
- (캐나다교과서) 의료: 특정 보건상의 문제는 없지만 의료비와 치과 치료 비용이 비쌀 수 있다.[89]→ 한국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내용을 첨가한다.
- (콜롬비아교과서) <지도: 에너지 소비> 한반도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90] →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남한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가로 수정해야 한다.

⑤ 교육언론출판

교육언론출판 분야는 총 11건으로 학업성취, 인쇄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 (미국교과서) <표 8.4 학업성취도 순위> 상위 4 국가 : 일본, 한국, 핀란드, 호주[91] → 학업 성취도 2위 국가인 한국의 교육(교육열, 대학진학률, 학습 과목 등)에 관한 추가 서술을 권장한다.
- (슬로베니아교과서) 인쇄의 발명, 인쇄술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은 바로 활자의 발명이었다. 15세기 중엽 독일인이었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바로 이러한 활자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활자의 발명은 다양한 텍스트의 인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92]→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직지심체요철에 대한 추가서술명이 필요하다.

⑥ 언어문학

언어문학 분야는 총 13건으로 한국어, 한글, 문맹률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 (태국교과서) 중국어 그룹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가 있다. 대개 동아시아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가 대상 국가들이다.[93]→한국어와 중국어 계통에 대한 학술

을 보더라도 중국어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중국어 그룹에 한국을 제외시켜야 한다.

- (콜롬비아교과서) <표: 언어의 다양성>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계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어, 에트루리아어, 수메르어, 수단어와 함께 고립된 언어에 포함되어 있다.[94]→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계에 포함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⑦ 역사

역사 분야는 163건으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미국교과서) 한국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95]→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 (홍콩교과서) 조선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으나, 청나라 조정이 쇠퇴하자[96] → '속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 (에콰도르교과서) <지도: 몽골제국>한국은 몽골제국에 속해있다고 표시되었다.[97]→ 13세기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가 존재했으므로, 몽골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

⑧ 예술체육문화

예술체육문화 분야는 총 30건으로 중국의 문화 영향이 라던가 미술, 체육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 (미국교과서) 한국인들은 이천년 이상 중국어와 한국어를 말로 사용했다(spoke). 이 기간은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긴 시기에 해당한다.[98]→ “한국인들은 2000년 이상 언어 생활에서 중국 한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한국에 정치적·문화 영향을 미쳤다.”로 수정해야 한다.
- (러시아교과서) 박남준의 “TV 부처”를 제시하였다.[99]→박남준’을 “백남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⑨ 의식주생활

의식주생활 분야는 총 12건으로 식생활이 많으며, 열량,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 (과테말라교과서) (지도: 영양섭취) 남한과 북한은 1

인당 2,000 ~ 3,000kcal를 섭취하는 국가로 표시되어 있다.[100]→남한과 북한의 수치는 다르므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남한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3,200kcal이므로 지도의 해당 범례에 따르면 3,000kcal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

- (태국교과서) “설령탕”은 깨, 소금, 고춧가루로 양념으로 맛을 내고 소고기가 들어간 국수이다. 향이 좋고 고소하다.[101]→ 설령탕은 소의 여러 부위(쇠머리, 사골, 도가니, 뼈, 사태고기, 양지머리, 내장 등)를 함께 넣고 푹 끓인 음식이다.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소금,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등을 따로 곁들여 먹기도 하지만, 설령탕 조리 시 깨, 소금, 고추 가루가 주된 재료는 아니다.

⑩ 종교철학

종교철학 분야는 53건으로 거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 (미국교과서) [지도: 세계 종교 지도] 한국은 중국 종교 국가(Chinese Religions)로 표기되어 있다.[102]→ 한국의 종교를 중국종교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 (인도교과서) 한국의 종교가 유교로 되어 있다.[103]→한국인이 믿는 주요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이다.

분야별 오류에서는 지리 오류(총 1,379건 중 628건)가 가장 많았다. 총 분석국가 80개국 중 67개국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압록강을 알루강으로 표기하고, 지도에서 한반도가 몽고제국, 한나라영토, 중국민족활동영역으로 표시되고, 백제와 신라사이의 남쪽 지역이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는 등의 한국이 중국, 몽고, 일본에 속한 나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번째로 경제산업 오류가 많았고, 3번째 정치사회로 한국전쟁, 인권,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된 오류가 많았다. 그 외 일본식민지의 역사, 한국인의 종교가 유교, 도교 등으로 표시된 점 등의 오류를 들 수 있다.

분야별 오류에서 지리가 46%에 해당하므로, 한국 지리에 대해 세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별 한국 관련 오류내용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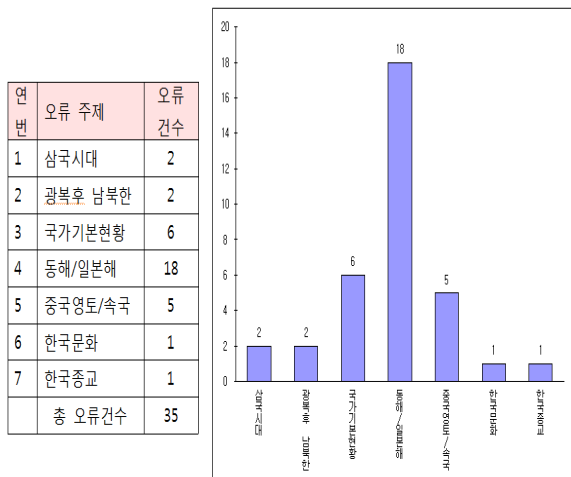
분석대상국 80개국(<표 2 참조>)의 오류 건수와 내용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동북아시아

① 대만

21권의 대만교과서 중 오류가 총 35개가 나오며, 오류 중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18건)가 제일 많고, 국가기본현황(6건), 중국영토/속국(5건), 광복후 남북한(2건), 삼국시대(2건), 한국문화(1건), 한국종교(1건)이 잘못 기술되어 있다. <표 11>

표 11. 대만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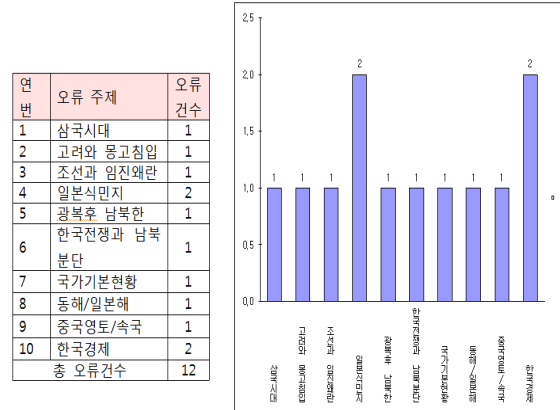
대만은 동해 또는 동해(일본해) 병기 노력과 한국의 기본현황 통계 등을 전달하여 오류를 개선하고, 한반도가 중국영토였거나 속국이었다는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역사, 한국문화, 그리고 일제식민지와 광복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대만교과서가 개선될 수 있게 한다.

② 몽골

몽골은 총 6건의 교과서중 오류건수 12건이 삼국시대(1건), 고려와 몽고침입(1건), 조선과 임진왜란(2건), 일본식민지(1건), 광복후 남북한(1건), 한국전쟁과 남북분단(1건)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역사적인 중국영토/속국에 대한 오류(1건)도 나온다. 현대 한국의 기본현황(1건) 및 한국의 경제(2건)에 대한 오류도 보인

다. 몽골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까지의 전반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표 12. 몽골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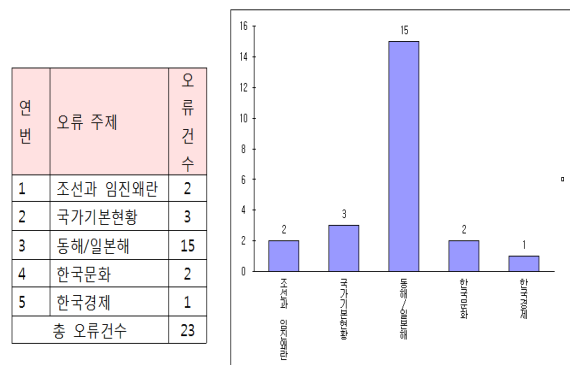


몽골의 오류개선책은 한국의 역사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본식민지, 광복, 한국전쟁과 관련된 역사자료와 국가기본현황, 한국의 경제까지 포괄하는 자료를 만들어 몽골에 제공하여 교과서를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교과서 분석업무가 2009년에 이관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분석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인민교육출판사와는 매년 교과서세미나를 진행하므로 총 19권의 중국 교과서 중 23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표 13>

표 13. 중국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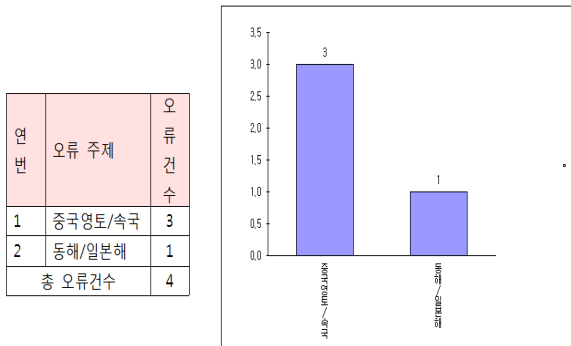
중국 교과서분석의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고 있는 점(15건)이 대다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국가기본현

황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 향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분석한 중국교과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④ 홍콩

4권의 홍콩교과서중 4건의 오류가 발견된다. 한반도가 한나라의 영토였다거나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내용(3건)과 동해가 일본해(1건)라는 표기가 보이는 데, 역사왜곡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표 14>

표 14. 홍콩 오류 건수 및 차트



동북아시아의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하거나, 국가 기본현황이 잘못 기술되어 있고, 대만과 홍콩의 교과서에는 특히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이거나 속국으로 기술된 점이 많아 이를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남아시아태평양

① 네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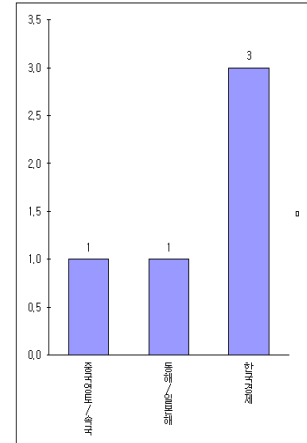
네팔은 1권의 교과서를 분석했으나, 한국관련 내용이 없었다. 네팔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는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5권의 교과서 중 오류는 5건이 발견되었는데,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1건),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1건), 현대, 대우, 해외투자 등의 한국경제(3건)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표 15>

표 15. 말레이시아 오류 건수 및 차트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중국영토/속국	1
2	동해/일본해	1
3	한국경제	3
총 오류건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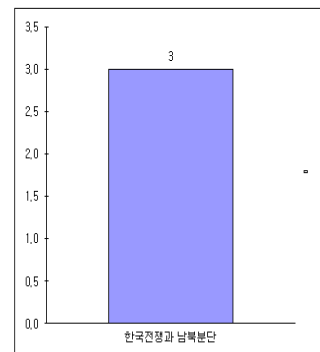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교과서에서도 한반도의 영토가 중국영토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

③ 베트남

베트남교과서는 1권을 분석하였으며, 3건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 오류내용은 모두 한국전쟁과 남북분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휴전선을 38선으로 기록하거나,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잘못 기록한 내용들이다. 베트남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표 16>

표 16. 베트남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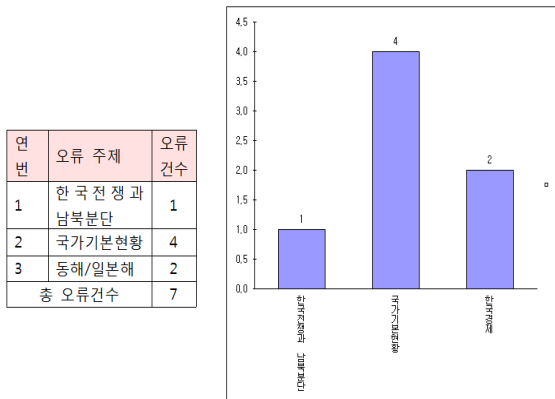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3
총 오류건수		3



④ 부탄

3권의 부탄교과서 중 7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이 1건, 국가기본현황 4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2건의 오류가 있다.<표 17>

표 17. 부탄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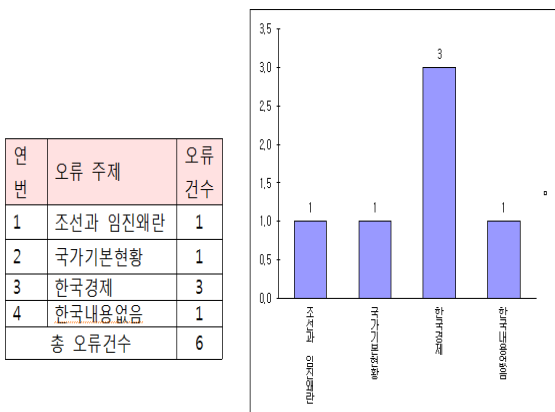


부탄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와 한국의 국가 기본현황 즉 인구, 면적, 주요수출품, 수입품 등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병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스리랑카

총 4권의 스리랑카 교과서 중 6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조선시대 청일전쟁과 관련된 오류(1건), 현대를 중국 기업으로 소개하거나 한국경제를 소개해야 할 부분에 단순히 국명정도만 언급한 경우(2건), 일본과 중국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한국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경우(1건), 한국국가통계가 제대로 수록되지 않은 경우(1건)가 있다. <표 18>

표 18. 스리랑카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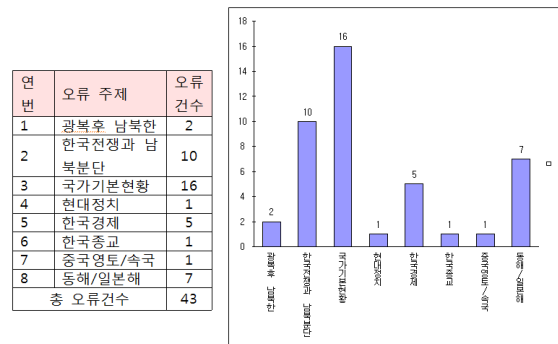
스리랑카에는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옳지 않은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한국에 관한 국가현황 및 통계, 발전된 한국경제 내용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한국이 제대로 수록될 것과, 또한 한국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수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⑥ 인도

12권의 인도교과서 중 43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국의 국가기본현황 오류가 제일 많았고(16건), 다음으로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오류가 많았다(10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으며(7건), 한국경제오류(5건), 광복후 남북한 잘못 기술(2건), 한국종교오류(1건), 한반도를 중국 영토/속국으로 표현한 오류(1건)이 있었다. <표 19>

표 19. 인도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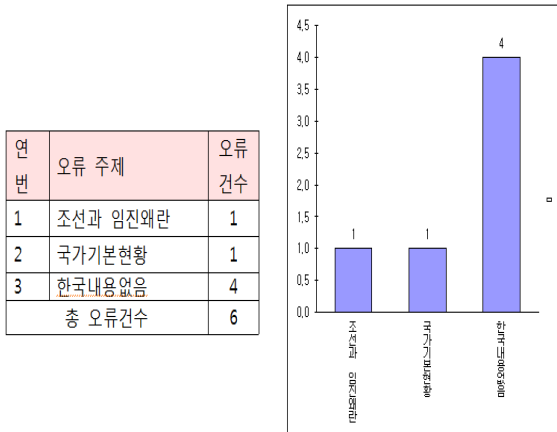
국가기본현황은 면적, 인구, 강수량, 식생과 같은 기본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발발 연도, 유엔참전국수, 한국전쟁에 관하여 명확한 서술이 안되어 있고 오류가 많다. 인도에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한국의 현대사회의 역사시대의 문화 등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⑦ 인도네시아

2권의 인도네시아교과서 중 6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조선 내용(1건), 국가기본현황(1건), 한국내용없음(4건)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도네시아교과서에는 특히 한국내용이 없어서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술문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 및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음악 한류에 대한 추가서술이 필요하고, 세계의 드라마/공연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한국의 드라마/공연에 대한 추가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의 드라마작품에 관하여는 ‘상속자’, ‘별에서 온 그대’ 등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 작품 및 한국 방송 및 드라마 포맷 수출에 대한 추가 서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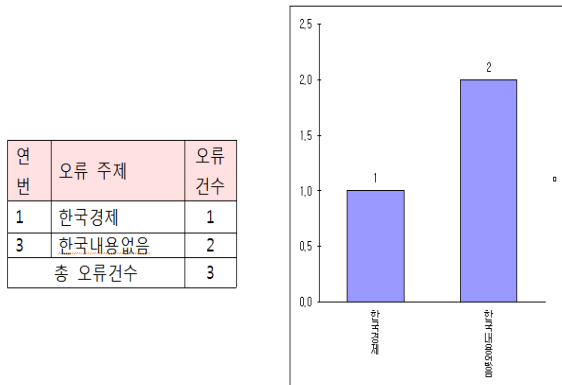
표 20. 인도네시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⑧ 캄보디아

캄보디아 교과서 3권중 3건의 오류가 발견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고(1건), 한국내용이 없는 곳에 신설이 필요하다(2건).<표 21>

표 21. 캄보디아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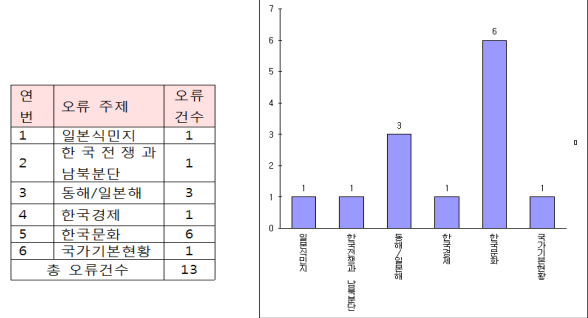


캄보디아교과서에서는 오류라기보다 한국내용이 거의 없어서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나라와 수도의 위치에서 한국의 수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아의 여러국가들 중 중국만 서술되고 한국에 대한 서술은 없다.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⑨ 태국

총 7권의 태국 교과서 중 13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일본식민지(1건), 한국전쟁과 남북분단(1건), 동해/일본해(3건), 한국경제(1건), 한국문화(6건), 국가기본현황(1건)의 오류가 보인다.<표 22>

표 22. 태국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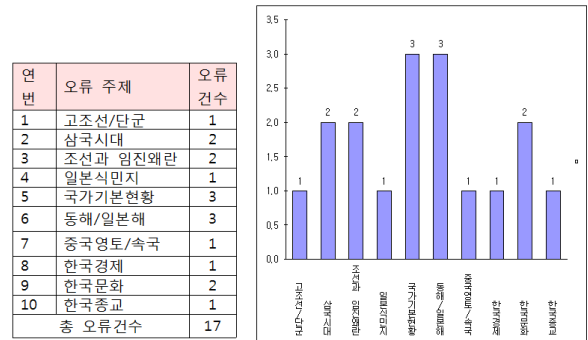


일본이 한국을 강탈한 연도가 1894년으로 되어 있고, 유엔참전국이 16개국인데, 18개국으로 기록하였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으며, 한국이 신흥개발국으로 서술되어 이는 맞지 않다. 한국문화로 한글, 태권도, 설렁탕, 식사예절이 기록되었으나 정확한 서술이 요구되고, 한국 왕조가 중국영향 아래 있었다는 오류도 있어, 태국교과서에는 한국문화가 비교적 여러 번 기록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태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⑩ 필리핀

총 5권의 교과서 중 17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필리핀 교과서에는 단군신화부터 삼국, 조선, 일본식민지, 현대사에 이르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표 23>

표 23. 필리핀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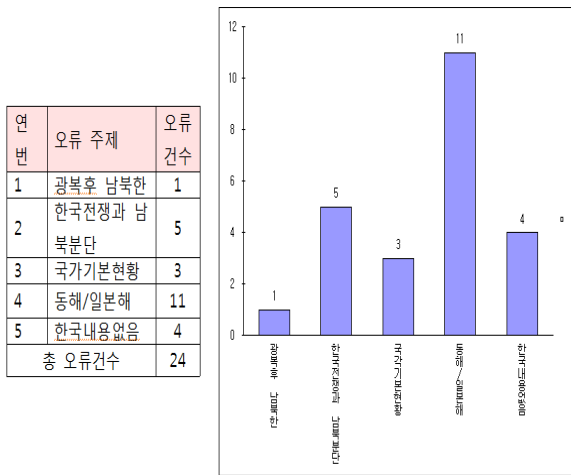
필리핀 교과서에는 고조선, 단군, 백제, 신라, 고구려, 조선, 일본의 조선합병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던가, 한반도가 청나라 영토였다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고, 현대한국의 인구, 국민총소득 등을 기술하여 간략하지만 한국의 총체적인 면모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연도표기 등에서의 오류와 역사왜곡 등이 발견되어 필리핀에는 한국의 구체적

인 역사와 현대사, 정치경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하여 한국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⑪ 호주

총 16권의 호주교과서 중 24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11건)가 가장 많고, 한국전쟁 서술오류(5건), 한국내용이 없거나(4건),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되어 있거나(3건), 광복후 남북한이 잘못 기술되었다(1건).<표 24>

표 24. 호주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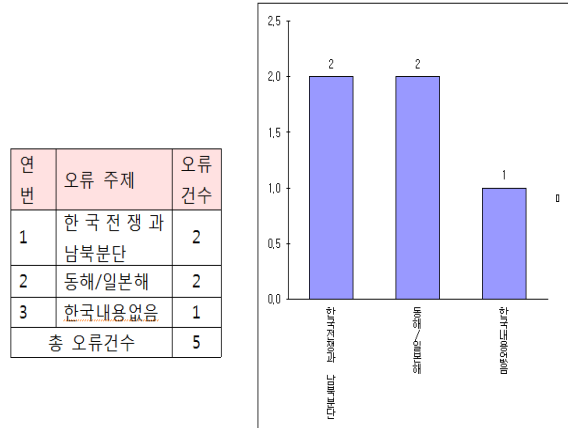


호주의 교과서에는 광복후의 내용 오류, 또는 한국내용이 많이 수록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한국의 인구, 면적, 출생률, 사망률, 평균수명 등 통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한국의 현대사외에 과거 역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본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한국내용을 충실히 수록할 필요가 있다.

⑫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총 3권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5개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뉴질랜드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2건)과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한 내용(2건)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2004년, 2005년판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2013년도 개정판에서는 교과서 구성이 이전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제되어 한국관련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한국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할 것을 개선점으로 보았다.<표 25>

표 25. 뉴질랜드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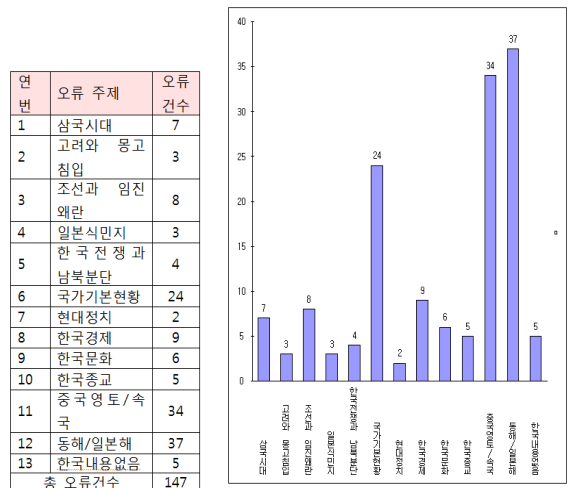
남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는 한국경제, 한국전쟁에 관련된 오류와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뉴질랜드, 호주 등의 일부 교과서에는 중국, 일본은 수록되어 있으나, 한국이 수록되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어 한국내용 수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북미

① 미국

총 48권의 교과서 중 147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제일 많지만(37건), 그 다음으로 한반도를 중국영토라거나 중국속국이라고 한 내용이 두 번째로 많았다.(34건) 또한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24건) 한국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한국을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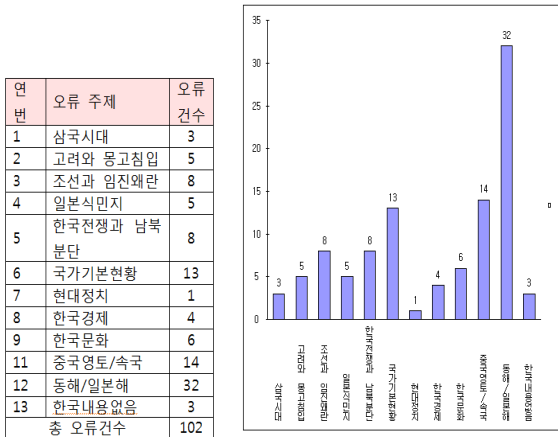
표 26. 미국 오류 건수 및 차트



② 캐나다

총 37권의 캐나다교과서 중 10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32건)가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한반도가 한나라영토, 진나라영토, 몽고영토 등으로 서술되었다(14건). 그리고 국가기본현황으로 인구, 평균수명, 국민소득 등이 기록되었으나, 최근내용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국가기본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전세계에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금속활자를 사용한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한국을 들었는데 [104], 아시아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로 수정해야 하며, 우리의 직지를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표 27>

표 27. 캐나다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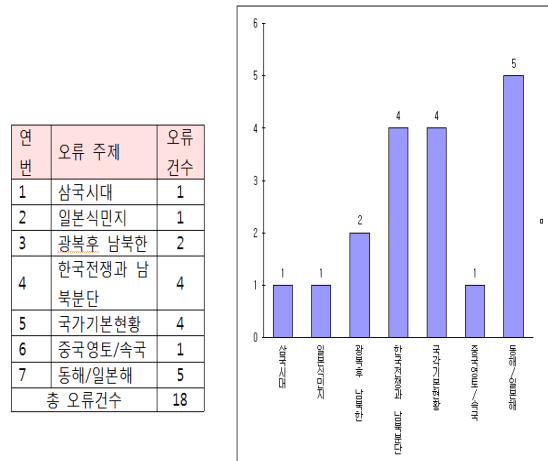
미국, 캐나다에서의 문제는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한 점이 가장 많고,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였거나 중국속국으로의 기록이 많았다. 이는 중국의 역사관이 그대로 미국, 캐나다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인데,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고, 중국속국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미국, 캐나다 교과서 집필 및 출판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이 제대로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본현황 즉 인구, 면적, 강수량, 인간개발지수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의 오류가 많은 점으로 보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년 국가기본정보 정도는 최신으로 작성하여 해외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직지 즉 금속인쇄술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라고 했다면, 이는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 최초이므로, 이를 적극 세계에 홍보하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중남미

① 과테말라

6권의 과테말라교과서 중 18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가 제일 많지만(5건), 인구, 면적, 기대수명, 국민소득 등의 국가기본현황이 최신 자료가 아니거나 잘못 기술된 경우(4건), 한국전쟁의 연도, 내용 등이 잘못 기술된 경우(4건), 중국이 고구려를 침략하고 신라를 동맹국으로 삼았다는 삼국시대내용(1건), 한반도가 중국 한나라 지배하에 있었다는 내용(1건), 일본식민지 연도를 잘못 기술한 내용(1건) 등이 있다.<표 28> 우선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한국전쟁, 광복, 동해표기 등을 중심으로 오류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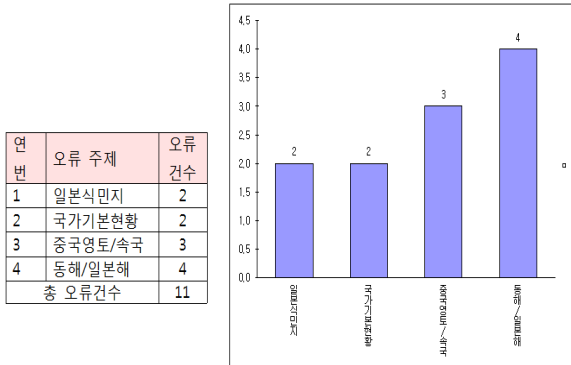
표 28. 과테말라 오류 건수 및 차트



② 니카라과

4권의 니카라과 교과서 중 1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내용(4건)과 한반도를 몽고영토, 만주영토 등으로 기록한 곳(3건), 한국의 식생, 동물, 인구밀도 등 국가기본현황이 잘못된 경우(2건), 일본식민지내용 오류(2건)들이 있었다.<표 29> 중국중심의 사관에서 한국사적 관점으로 한반도가 중국영토나 속국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 있으며, 동해표시, 그리고 최신 국가기본현황전달, 일본식민지시대의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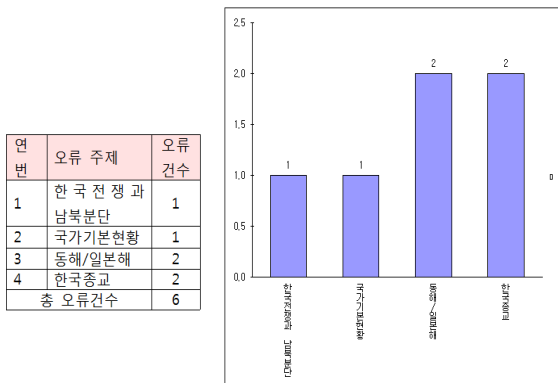
표 29. 니카라과 오류 건수 및 차트



③ 도미니카공화국

4권의 도미니카교과서 중 6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2건)과 한국종교를 불교, 도교, 유교로 표시하거나(2건), 한국의 광물자원현황 오류(1건),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내용 오류(1건)가 발견된다.<표 30> 한국의 종교현황, 동해표시, 한국전쟁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고, 최신 국가기본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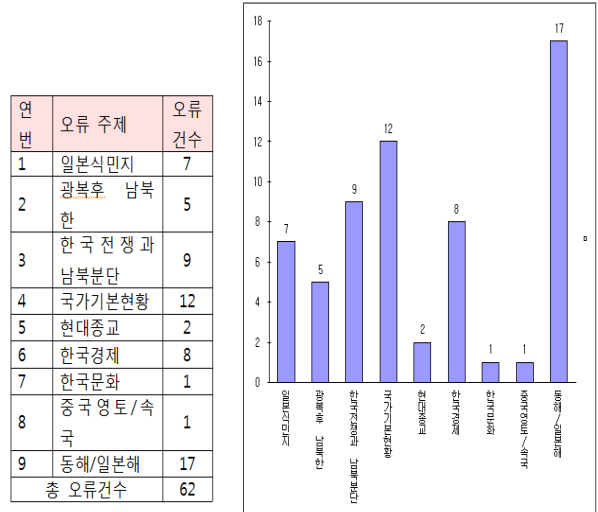
표 30. 도미니카 오류 건수 및 차트



④ 멕시코

20권의 멕시코 교과서 중 6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17건)으로 제일 많았으나, 인구, 도로, 인터넷, GDP 등의 국가기본현황정보가 제대로 수록되지 못한 경우(12건)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한국전쟁(9건), 한국경제(8건), 일본식민지(7건)의 순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표 31> 한국의 기본현황, 경제, 일본식민지, 광복, 동해표기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시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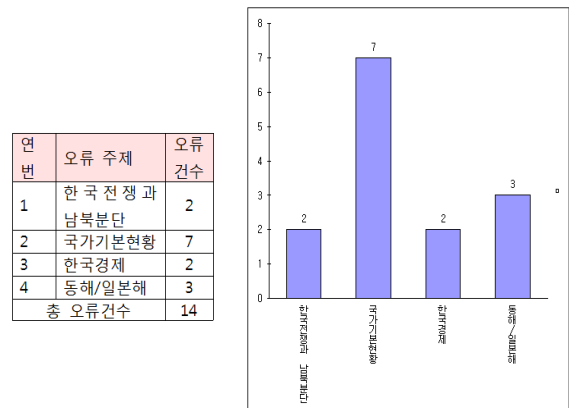
표 31. 멕시코 오류 건수 및 차트



⑤ 베네수엘라

5권의 베네수엘라 교과서 중 14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대수명, 기후, 항공노선, 강수량 등의 국가기본현황정보가 제일 잘못되어 있다.(7건) 그 외 한국은 아직도 저개발국가이며, 한국전쟁에 대한 오류내용이 있다.<표 32> 한국의 기본현황이 잘못 알려진 점이 오류가 가장 크므로 최신 한국기본현황을 제공하고, 한국전쟁과 경제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표 32. 베네수엘라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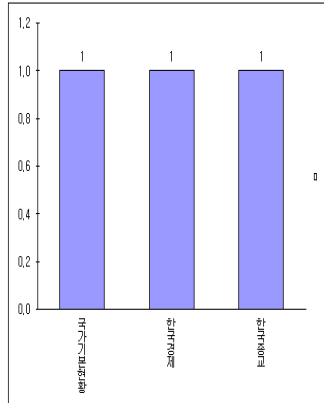


⑥ 브라질

2권의 브라질 교과서 중 3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국의 민족구성, 종교, 아시아의 호랑이로서의 한국을 언급했으나, 서술부분에 오류가 발견된다.<표 33> 최신 국가기본현황, 경제 등의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표 33. 브라질 오류 건수 및 차트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국가기본현황	1
2	한국경제	1
3	한국종교	1
총 오류건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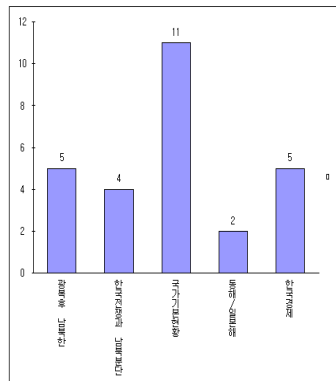


⑦ 아르헨티나

8권의 아르헨티나 교과서 중 27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인구, 인터넷현황, 기후, 인간개발지수 등의 국가기본현황 오류가 가장 많다.(11건) 또한 남한이 남아시아에 포함되거나 제3세계로 분류되고(5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기술하는 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오류(4건)도 많이 발견된다.<표 34> 최신 국가기본현황 작성 및 전달이 필수적이고, 광복, 한국전쟁, 경제 자료를 작성하여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한다.

표 34. 아르헨티나 오류 건수 및 차트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광복후 남북한	5
2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4
3	국가기본현황	11
4	동해/일본해	2
5	한국경제	5
총 오류건수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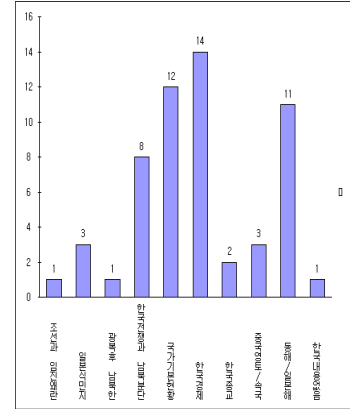
⑧ 에콰도르

17권의 에콰도르 교과서에서 56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국경제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고(14건), GDP, 강수량, 기후 등의 국가기본현황 오류(12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11건), 한국전쟁에 대한 오류(8건) 순으로 잘못 기술된 경우가 많았다.<표 35> 한국 경제와 기본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자료 전달과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하고,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등 세계사에 정확히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작성하여 전달한다.

표 35. 에콰도르 오류 건수 및 차트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조선과 임진왜란	1
2	일본식민지	3
3	광복후 남북한	1
4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8
5	국가기본현황	12
6	한국경제	14
7	한국종교	2
8	중국영토/속국	3
9	동해/일본해	11
10	한국내용없음	1
총 오류건수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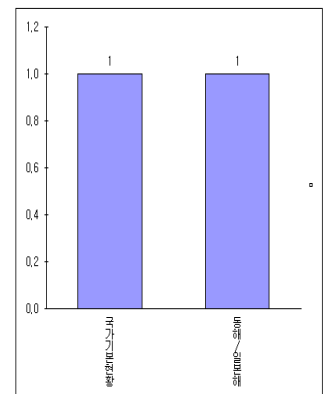


⑨ 엘살바도르

1권의 엘살바도르 교과서 중 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거나, 한국의 기후가 중국성 온대기후로 표현되는 오류가 있었다.<표 36>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전달하고, 한국전쟁 등 한국내용이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표 36. 엘살바도르 오류 건수 및 차트

연번	오류 주제	오류 건수
1	국가기본현황	1
2	동해/일본해	1
총 오류건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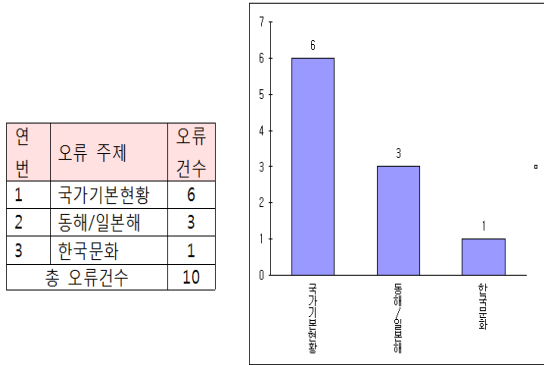


⑩ 온두라스

2권의 온두라스 교과서 중 10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수도, 면적, 인구, 국민소득, 인간개발지수, 항구 등의 자료가 과거의 자료이며(6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식생활문화에서 똑같이 2,500~2,900Kcal를 소모하는 국가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표 37>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알려져 있으므로, 최신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하고,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내용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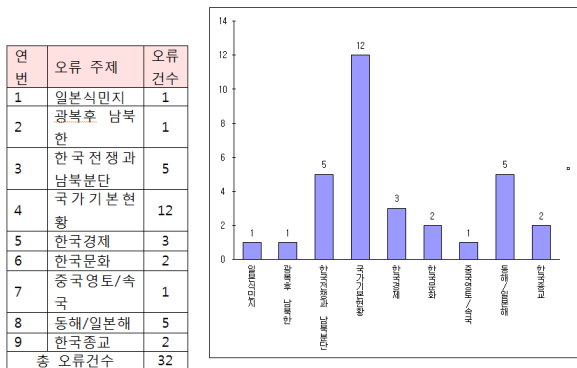
표 37. 온두라스 오류 건수 및 차트



⑪ 우루과이

14권의 우루과이 교과서 중 3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국민생산량, 관광객수, 식생, 기후, 인간개발지수, 항공노선 등 잘못된 정보 및 과거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12건), 그 외 한국전쟁과 관련된 오류 (5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5건) 등이 있었다. <표 38>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전해져있으므로, 정확함 최신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한국전쟁, 한국경제 등에 대한 자료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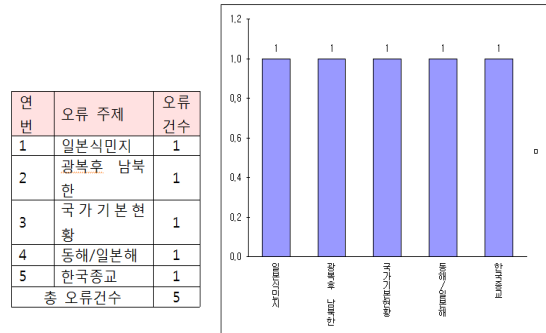
표 38. 우루과이 오류 건수 및 차트



⑫ 칠레

2권의 칠레교과서 중 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19세기에 이미 한국이 일본식민지였다거나, 인구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고, 한국이 유교국가로 기술되어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된다.<표 39> 국가기본현황, 일본식민지, 광복 등에 관한 최신자료를 전달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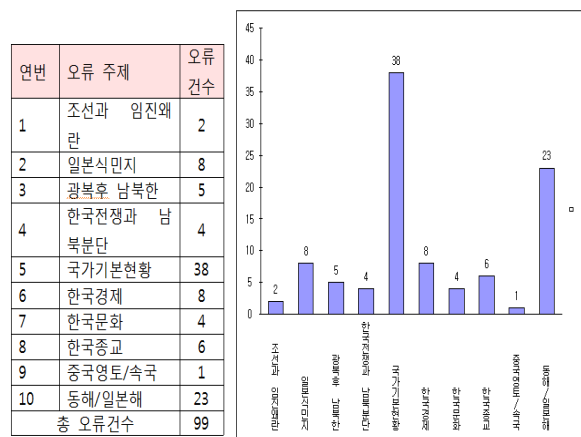
표 39. 칠레 오류 건수 및 차트



⑬ 콜롬비아

42권의 콜롬비아 교과서 중 99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가장 오류가 많은 주제는 국가기본현황으로(38건) 문맹율, 기후, 식생, 인구성장율, 항공로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23건), 한국경제(8건), 일본식민지 서술오류(8건), 한국종교가 유교이거나 불교(6건)이고, 17세기 극동에 대한 서술 오류(2건), 중국에 조공을 바치므로 한국이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오류(1건)가 발견된다. <표 40> 국가기본현황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최신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조선, 일본식민지, 광복, 한국전쟁, 한국경제, 한국문화에 이르는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 수정노력을 기울인다.

표 40. 콜롬비아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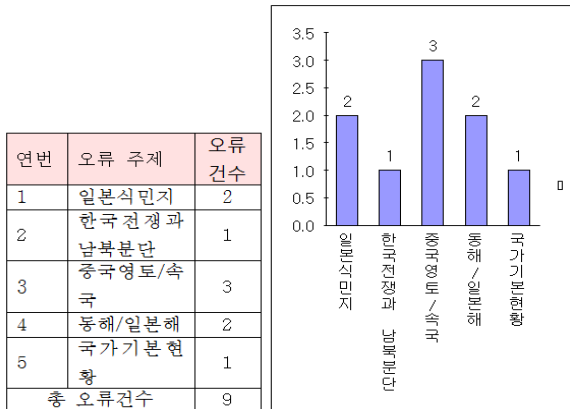


⑭ 파나마

3권의 파나마교과서 중 9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명나라나 몽고영토였다는 기록(3건)과 일본으로부터의 탈식민지 연도를 1948년으로 기록한 오류 등(2건), 인구밀도 오류(1건), 한국전쟁 내용 오류(1건)이 기록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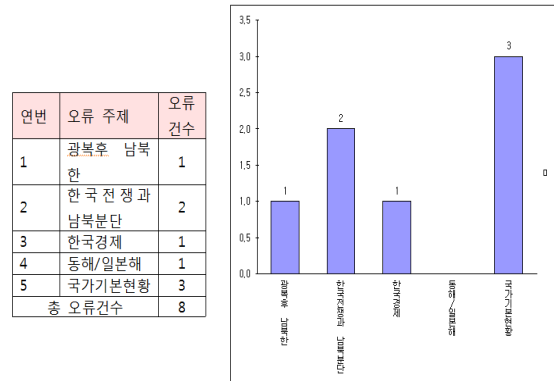
다.<표 41> 중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가 중국영토 또는 속국으로 기술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국가 기본현황 자료를 전달하고,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등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표 41. 파나마 오류 건수 및 차트



현황 오류(3건), 한국전쟁 내용 및 연도 오류(2건), 남한과 북한이 APEC 회원국이라는 내용(1건) 등 오류가 발견된다.<표 43>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광복, 한국전쟁, 한국경제 등에 대한 올바른 자료제공과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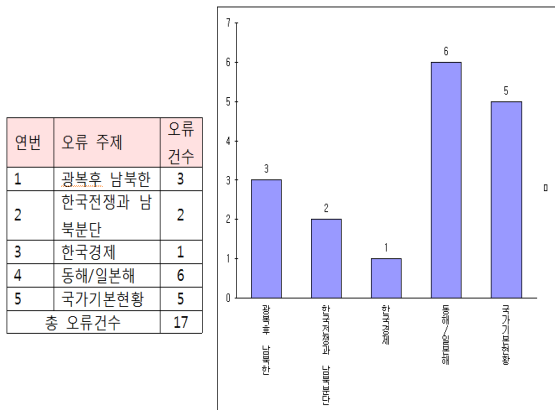
표 43. 페루 오류 건수 및 차트



⑮ 파라과이

10권의 파라과이 교과서 중 17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건), 인구, 종교, 정부형태 등 국가기본현황 오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5건), 그 외 광복후 남북한(3건), 한국전쟁(2건), 한국경제(1건)의 오류가 있었다.<표 42> 최신 국가기본현황 전달 및 광복, 한국전쟁,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시정노력을 기울인다.

표 42. 파라과이 오류 건수 및 차트



중남미의 경우에는 오류가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는 역사시대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오류가 발견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별 오류를 살펴보고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시대의 한국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고조선부터 조선, 일본식민지시대까지의 내용서술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야겠으나, 중남미의 경우는 역사시대의 한국내용이 수록되어있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바로알리기의 경우 중남미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한국바로알리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인 인구, 면적, 강수량 등의 통계 및 정확한 정보가 중남미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최신자료를 작성하여 중남미 각국의 교과서 출판사에 보내는 노력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유럽

①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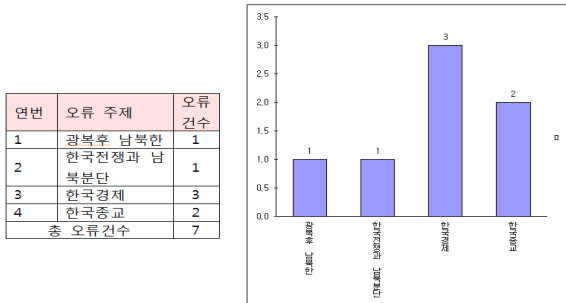
⑮ 페루

3권의 페루교과서 중 8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국의 금속광물 생산량, 인간개발지수, 기후 등의 국가기본

5권의 네덜란드 교과서 중 7건의 오류가 발견된다. 한국이 저임금국가이거나 동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라는 기록(3건)과 한국의 종교가 불교로 표시(2건)되어 있고, 광복 내용(1건)과 한국전쟁 오류(1건)가 보인다.<표 44>

한국경제, 광복, 한국전쟁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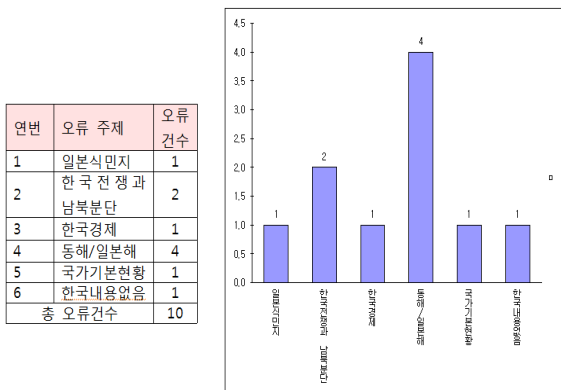
표 44. 오류 건수 및 차트



② 노르웨이

8권의 노르웨이 교과서 중 10건의 오류가 발견된다.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4건)가 가장 많고, 휴전선을 38선으로 기술한 경우(1건), 그리고 한국관련 내용으로는 한국전쟁이 유일한 교과서가 있으나 한국내용이 더 증설이 필요하며(1건), 한국경제도 1990년대의 모습이 수록되어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1건), 현대사 교과서에 중국과 일본은 기술되어 있으나 한국은 수록되지 않은 점(1건)에서 한국이 서술되는 것을 권장한다.<표 45>

표 45. 노르웨이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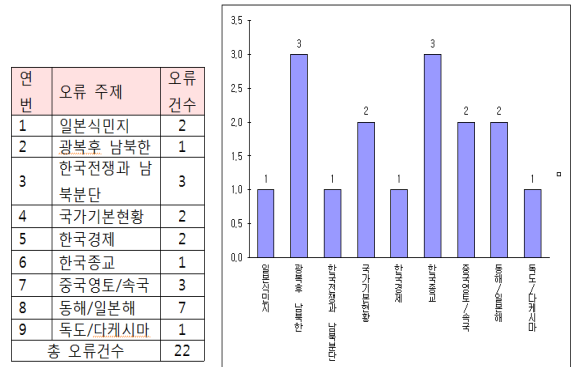


③ 독일

11건의 독일 교과서 중 22건의 오류가 발견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7건)가 가장 많고, 한국전쟁과 관련된 오류(3건), 또한 한국이 중국 속국이거나 중국통제 하에 있었다는 오류(3건), 일본식민지 오류(2건)가 있고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였으며(1건), 국가기본정보로써의 불공급이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며(1건), 종교가

신도교, 유교, 도교, 불교로 잘못 기술되는 오류(1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잘못 알려졌고, 독도도 다케시마가 병기되는 등 오류가 치명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표 46>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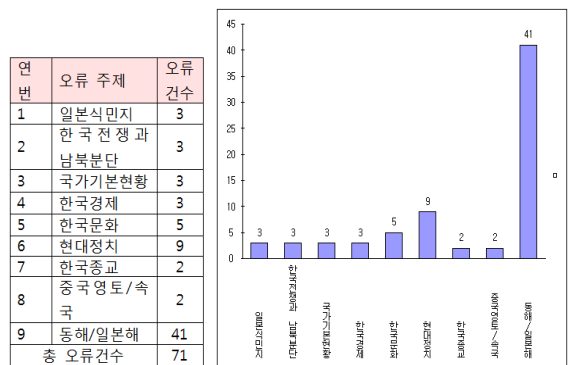
표 46. 독일 오류 건수 및 차트



④ 러시아

49권의 러시아 교과서 중 7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41건)가 가장 많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정치에 대하여 민주주의나 선거에 대한 내용 오류(9건)가 많은 편이다. 러시아에서는 한국문화로 백남준의 예술(4건)과 한국의 동화(1건)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식민지(3건), 한국전쟁(3건), 한국경제(3건)에 대한 오류들이 있으며, 한국이 청나라 지배하에 있었거나 속국이었다는 내용오류(2건)가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한국문화인물로 백남준에 대한 서술이 많으므로 백남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표 47> 그 외 관련 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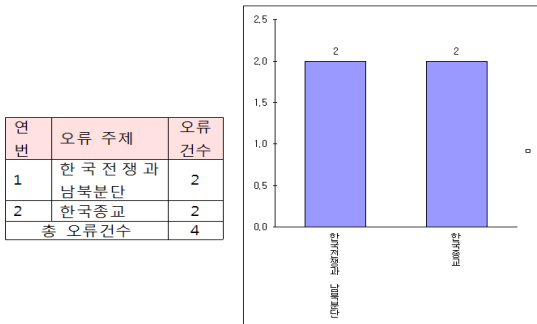
표 47. 러시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⑤ 리투아니아

4권의 리투아니아 교과서에서 4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선을 휴전선이 아닌 38선으로 기록하였으며(2건), 한국종교가 불교(2건)로 잘못 기록하였다. <표 48>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시정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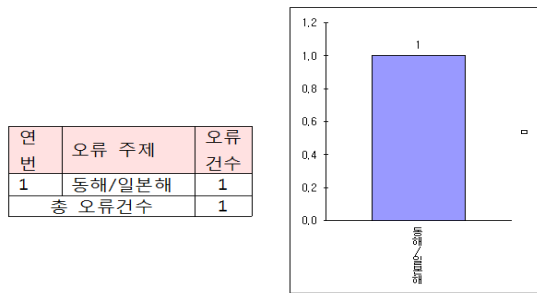
표 48. 리투아니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⑥ 몰도바

1권의 몰도바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을 표시하는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하는 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49> 동해로의 표시를 권장하여 수정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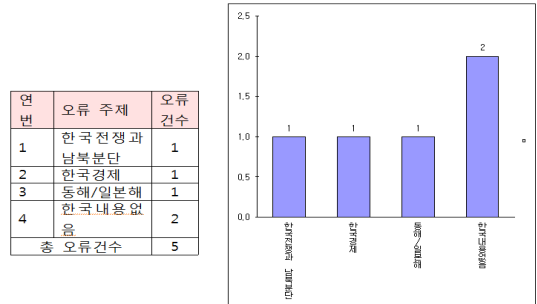
표 49. 몰도바 오류 건수 및 차트



⑦ 벨라루스

3권의 벨라루스 교과서에서 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벨라루스의 근대 세계사에는 한국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2건).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기술되었고(1건), 한국 경제에서 조선업에 관한 내용오류(1건)가 있다.<표 50> 한국내용이 더욱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경제, 한국전쟁 등이 역사,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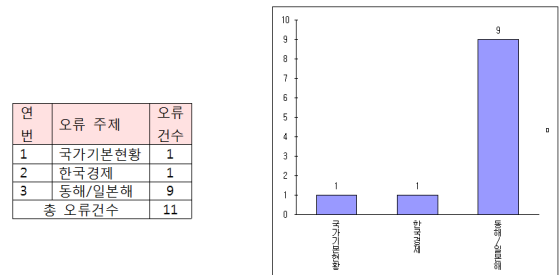
표 50. 벨라루스 오류 건수 및 차트



⑧ 불가리아

11권의 불가리아 교과서 중 11건의 오류가 보인다.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9건)가 대다수이며 한국경제는 일본원조의 영향이었다거나의 잘못된 기록이 있고(1건), 교통, 항공내용에서 한국내용을 수정할 필요(1건)가 있다.<표 51>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제공하고 다양한 한국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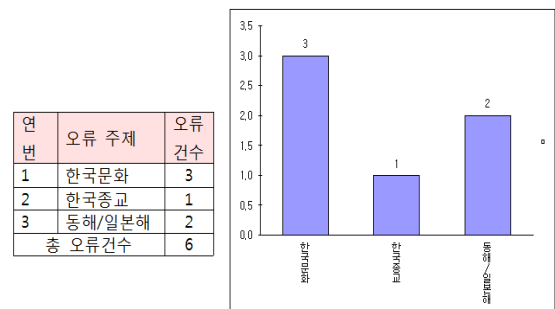
표 51. 불가리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⑨ 세르비아

6권의 세르비아 교과서 중 6건의 오류가 보인다. 구텐베르크의 세계 최초 인쇄술에 대하여 한국의 직지로 수정해야하는 오류(3건)과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2건), 한국의 종교가 유교로 표시된 오류(1건)가 있다.<표 52>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통해 오류를 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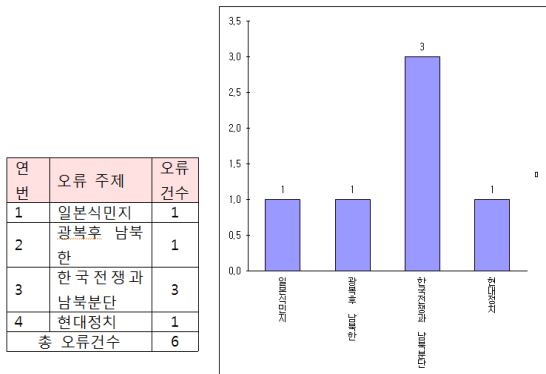
표 52. 세르비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⑩ 스웨덴

6권의 스웨덴 교과서에서 6건의 오류가 있다. 스웨덴 교과서에는 냉전시대의 종결로 한국전쟁이 제시되나(3건) 한국에 관련된 내용은 일본식민지, 독립, 독재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오류가 보인다.<표 53> 일본식민지, 광복, 한국전쟁, 한국정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전달과 오류시정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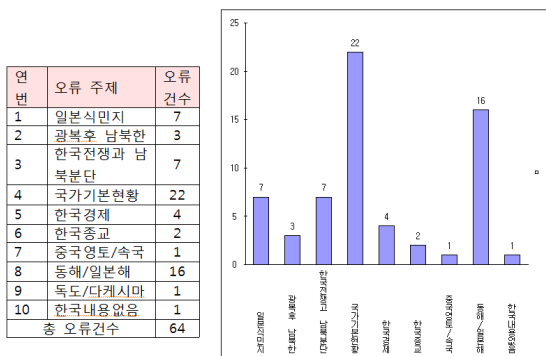
표 53. 스웨덴 오류 건수 및 차트



⑪ 스페인

26권의 스페인 교과서에서 64건의 오류가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국가기본현황으로 인간개발지수, 해외이주현황, 도시화율, 기후 등의 최신자료가 요구되고(22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많고(16건), 일본식민지와 한국전쟁 오류(각 7건씩), 아시아의 용으로써의 한국의 경제(4건), 불교국가 한국(2건), 그리고 독도를 일본에 가까이 그려놓은 지도 오류(1건) 등이 있다.<표 54> 현재 스페인 교과서에는 한국내용이 많이 수록되고 오류도 많이 수정되고 있으나,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한국경제 등 정확한 한국내용이 반영되어 수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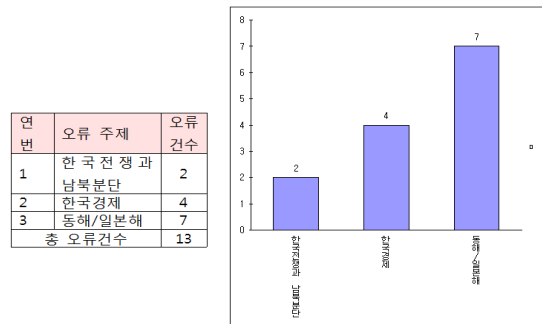
표 54. 스페인 오류 건수 및 차트



⑫ 슬로바키아

9권의 슬로바키아 교과서에서 13건의 오류가 보인다. 한국전쟁의 날짜나 내용오류(2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7건), 한국의 경제성장이 일본이 도와주었다는 내용(4건) 등 오류가 발견된다.<표 55> 한국전쟁과 한국경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시정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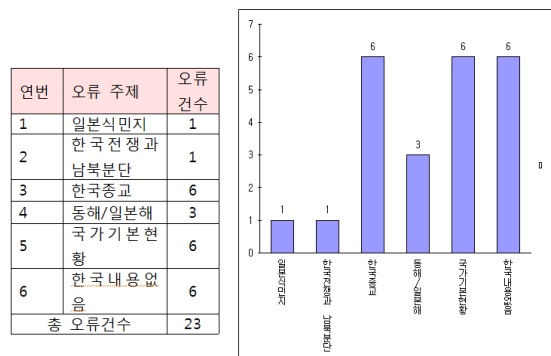
표 55. 슬로바키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⑬ 슬로베니아

12권의 슬로베니아 교과서 중 23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종교가 불교, 유교, 도교로 표시되거나(6건), 중국과 일본은 독립된 절로 서술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서술은 없거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의 경우 구텐베르크 활자가 아닌 한국의 직지로 수정이 필요한 곳(6건), 한국의 UN, OECD 등 가입현황과 영아사망율 및 기대수명 표시가 필요한 곳(6건), 일본해를 동해로의 표기가 필요한 부분(3건), 19세기에 이미 한국이 일본에 속한 나라로 되어 있거나(1건), 한국을 자유진영에 표시하지 않은 지도(1건) 등이 오류에 해당한다.<표 56>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내용이 수록되어야 할 교과서에 한국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이 수록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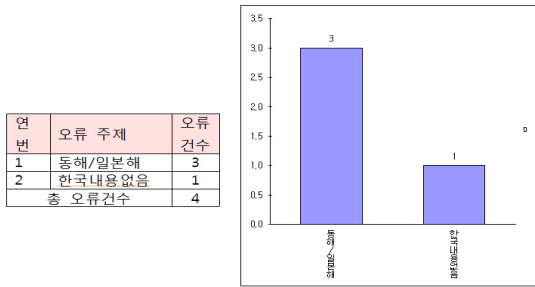
표 56. 슬로베니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⑭ 아르메니아

4권의 아르메니아 교과서 중 4건의 오류가 보이는데,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오류(3건), 그리고 세계사교과서에 한국내용이 보이지 않는데(1건) 한국에 대한 역사, 지리, 경제를 포함한 개괄적 내용 소개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 개발 및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통계자료의 서술이 필요하다.<표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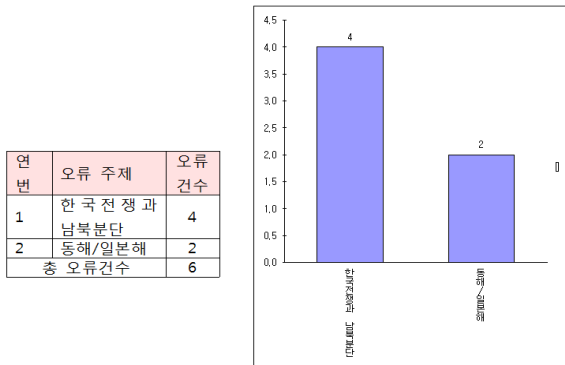
표 57. 아르메니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⑮ 아일랜드

3권의 아일랜드 교과서 중 6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전쟁 파병국 수 오류와 휴전선을 38선으로 서술한 오류(4건)가 보이며, 동해를 일본해로 서술하였다(2건).<표 58> 한국전쟁에 관한 정확한 자료전달이 필요하고 오류 시정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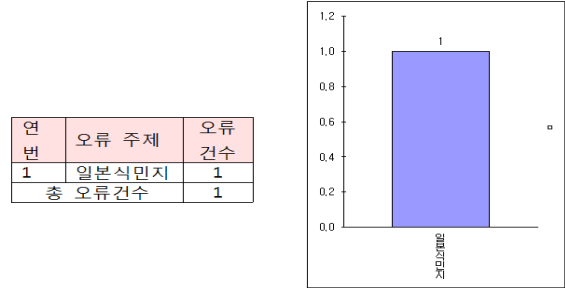
표 58. 아일랜드 오류 건수 및 차트



⑯ 아제르바이잔

1권의 아제르바이잔 교과서 중 1건의 오류가 있다. 청일전쟁이후의 일본의 공식적인 지배에 대한 내용 오류(1건)가 나온다.<표 59> 일본식민지 역사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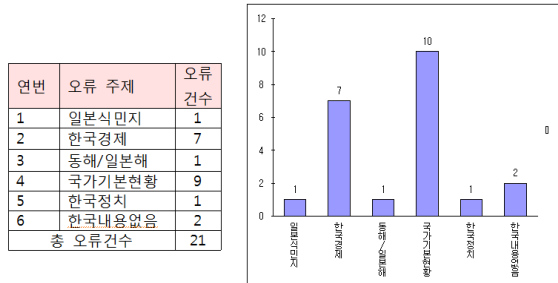
표 59. 아제르바이잔 오류 건수 및 차트



⑰ 영국

14건의 영국교과서 중 21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9건), 즉 GDP, 기대수명, 인간개발지수, 의사수, HDI, 출생률 등의 오류가 있다. 또한 한국경제에서 현대조선소의 위치 오류 및 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 내용 증신설이 필요하다. 현대사에서 한국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국전쟁을 수록하고, 격변기를 극복한 한국의 성공사례를 신는 것이 필요하다.<표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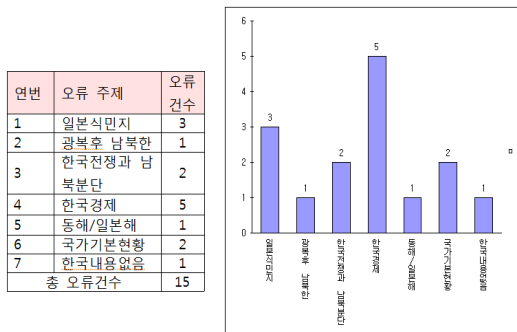
표 60. 영국 오류 건수 및 차트



⑱ 오스트리아

11권의 오스트리아 교과서 중 15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이 면화생산지이며, 신흥공업국이고 나이키공장과 미쓰비시 자동차공장이 있는 나라라는 한국경제 오류(5건), 일본식민지 서술 오류(3건)과, 인터넷 사용율, 이민자수 등의 국가기본현황오류(2건) 등이 보인다.<표 61> 국가기본현황 및 한국경제,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광복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시정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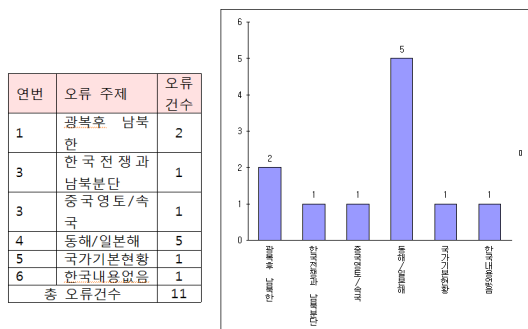
표 61. 오스트리아 오류 건수 및 차트



⑰ 우즈베키스탄

8권의 우즈베키스탄 교과서 중 11건의 오류가 보인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5건)가 가장 많고, 광복의 연대 및 내용 오류(2건)와 한국이 1737년 청나라의 종속국이란 잘못된 표현이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에 대한 기술내용은 있으나, 한국 내용이 빠져있어 내용 신설이 요구된다.<표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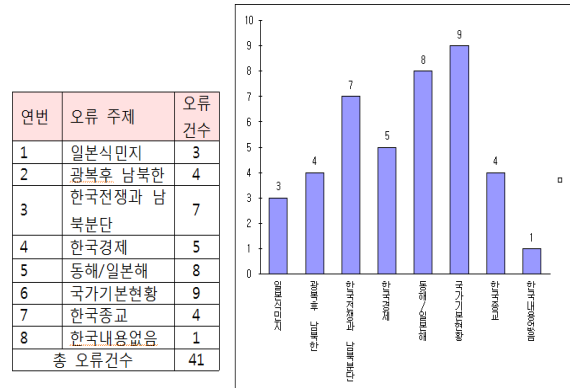
표 62. 우즈베키스탄 오류 건수 및 차트



⑳ 이탈리아

28권의 이탈리아 교과서 중 41건의 오류가 보인다. 국가기본현황으로 인터넷 사용자 인구, 이민자수, 인간개발지수, 국민총소득 등에 대한 오류(9건)가 많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8건), 한국전쟁 내용 오류(7건), 한국이 불교, 유교국가라는 오류(4건) 등이 있으며, 특히 중등과정용 현대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없어 냉전시기를 거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표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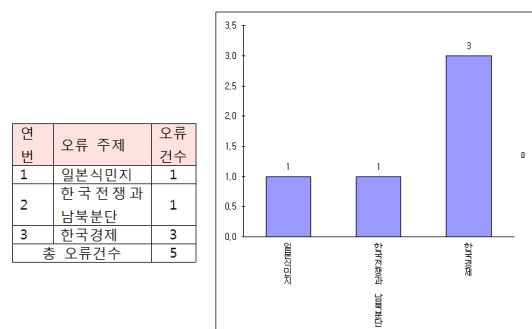
표 63. 이탈리아 오류 건수 및 차트



㉑ 체코

5권의 체코 교과서 중 5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호랑이이며, 세계의 가장 큰 항구로 광양이 언급되었으나(3건) 한국경제의 증설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식민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도 소략하여 증설이 필요하다.<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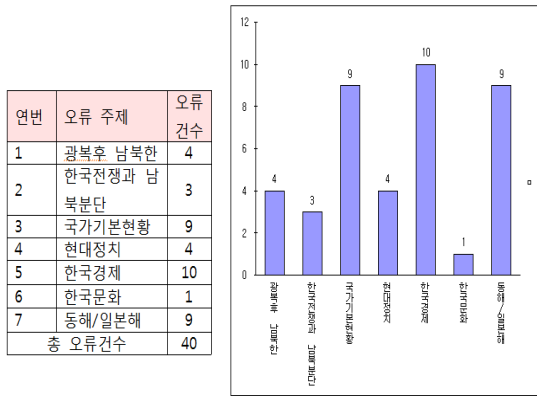
표 64. 체코 오류 건수 및 차트



㉒ 카자흐스탄

12권의 카자흐스탄 교과서 중 40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수출, 수입품목, 경제활동인구, 조선, 자동차산업 등의 내용(10건)이 올바르게 수록되어야 하고, 국가기본현황으로 행정구역, 한국에 대한 기본설명, 서울, 부산의 지명 내용이 제대로 서술되어야 한다.(9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으며(9건), 광복(4건)과 한국전쟁(3건)에 관한 오류가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 하야성명서 날짜 오류 및 김영삼대통령 당선 연도 오류 등(4건)이 있고, 비디오아트 백남준을 남윤백으로 잘못 서술하였다.<표 65> 한국경제, 국가기본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전달이 필요하고, 광복, 한국전쟁, 한국정치, 한국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여 오류시정활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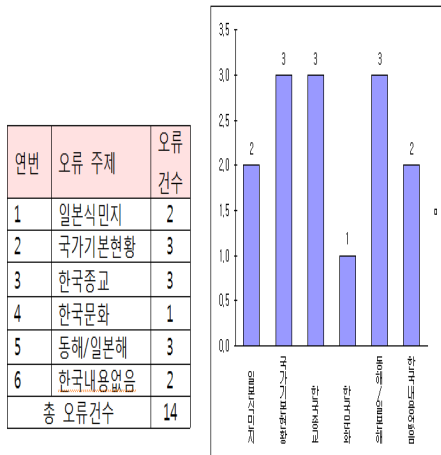
표 65. 카자흐스탄 오류 건수 및 차트



㉓ 크로아티아

9권의 크로아티아 교과서 중 14건의 오류가 있다. 일본 식민지 연도오류(2건), 강수량, 인구, 도시거주율, 인구의 자연적 변화비율,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1/2/3차 산업분야에 따른 국내총생산 비율, 직업분포에 따른 국내총생산 비율 등의 국가기본현황 오류(3건),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3건), 한국중교가 불교나 소승불교로 표시된 점(3건), 한국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표시된 것(1건) 등의 오류가 보인다. 또한 한국내용이 없는 부분인 10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휴머니즘-새 시대의 도래를 알림’과 관련하여 인본주의의 확산에 기여한 요하네스 쿠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와 관련하여 쿠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에 200년 앞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활자를 이용한 출간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표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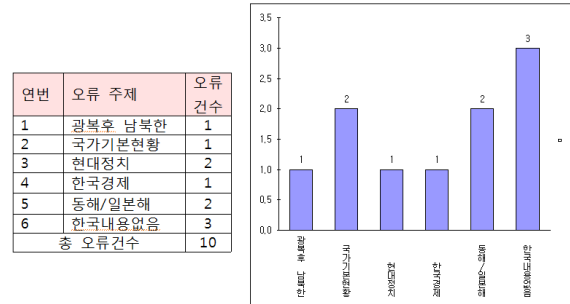
표 66. 크로아티아 오류 건수 및 차트



㉔ 키르기스스탄

7권의 키르기스스탄 교과서 중 10건의 오류가 보인다. 고대사, 중세사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 일본, 인도부분은 있으나 한국내용은 없으므로 신설되어야 한다(3건). 또한 키르기스스탄과의 외교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증설되어야 하며, 한국경제에서 남한의 골드스타 공장부분을 수정하여 현재의 LG, 삼성 등의 발전상을 수록해야 한다. 그 외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하고 있으며, 남한 최초의 자유선거 연도가 1948년이 아닌 1992년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표 67> 현대정치, 경제, 국가기본현황, 광복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 전달과 오류시정 활동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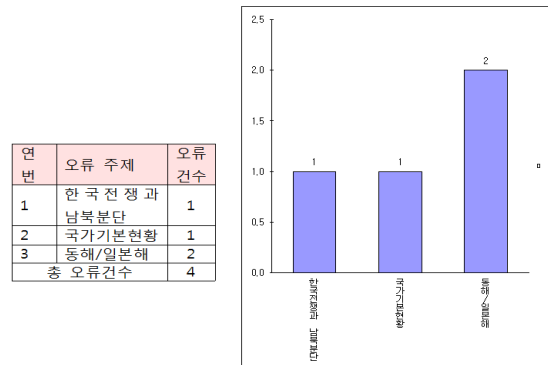
표 67. 키르기스스탄 오류 건수 및 차트



㉕ 타지기스탄

4권의 타지기스탄 교과서 중 4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으며(2건) 한국의 국가개관에 제2언어로 일본어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의 큰 정치적 간섭으로 서술 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다.<표 68> 국가기본현황 전달 및 한국전쟁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시정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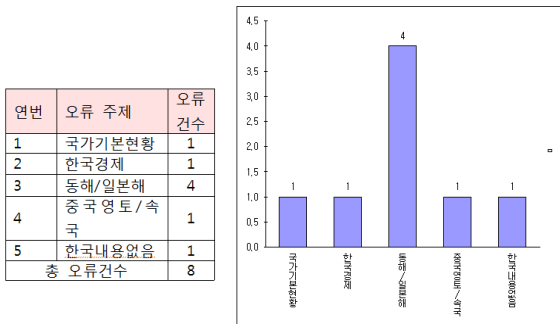
표 68. 타지기스탄 오류 건수 및 차트



㉔ 터키

4권의 터키교과서 중 8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가 일본해로 기록되어 있으며(4건), 한반도가 흉노의 영토였고(1건), 2003년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한국관련 내용이 없는데[105], 한국내용을 신설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표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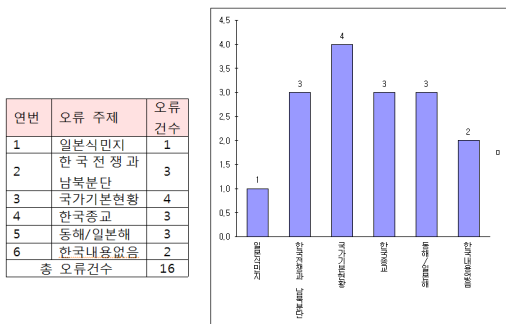
표 69. 터키 오류 건수 및 차트



㉕ 프랑스

9권의 프랑스 교과서 중 16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세계 주요 이민 흐름 중 인구유입국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과 이민 시스템, 취학률 등의 최신 현황(4건)이 필요하며, 한국의 종교가 불교로 되어 있고(3건), 한국전쟁 내용 오류(3건),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3건)되었거나, 프랑스 역사교과서에 한국이 소략하게 서술되거나 아예 서술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의 시각자료 및 추가적인 서술이 필요하다.<표 70>

표 70. 프랑스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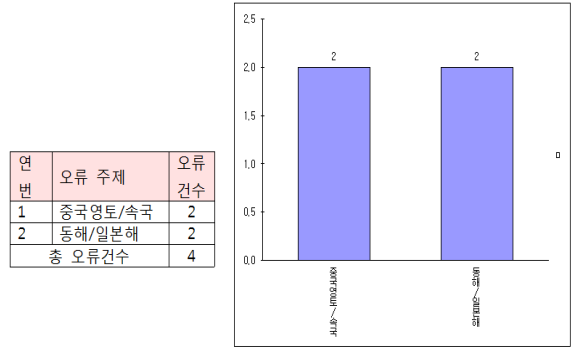


㉖ 핀란드

4권의 핀란드 교과서 중 4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2건), 한국이 1600년대 중국의 속국

이라는 내용(2건)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표 71> 중국사 중심이 아닌 정확한 한국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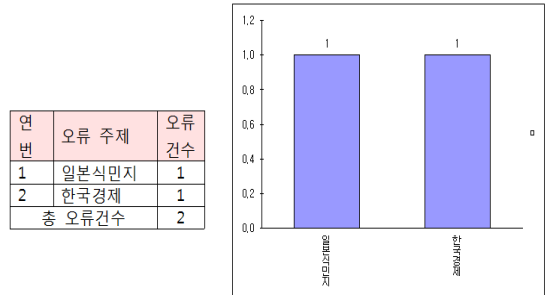
표 71. 핀란드 오류 건수 및 차트



㉗ 헝가리

2권의 헝가리 교과서 중 2건의 오류가 있다. 일본식민지 연대가 1910년이 아닌 1905년부터라는 잘못된 기록(1건)과 한국의 경제가 일본과 미국의 원조로 발전하였다는 것(1건)이다.<표 72> 한국경제와 일본식민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표 72. 헝가리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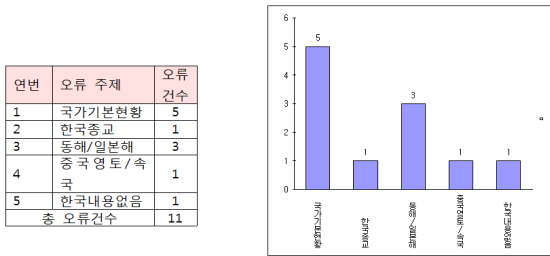
유럽 29개국의 오류내용도 거의 일본식민지시대 이후부터 현대의 국가현황 및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이고 과거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에 이르는 역사시대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역사시대의 오류가 없어서 오류내용이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오류가 없었다고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오류로 잡힌 80개국의 1,379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지만, 향후 외국교과서 내에 수록된 한국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록된 한국의 역사시대의 내용은 무엇이고, 한국내용이 없다면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할 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6) 아프리카 중동

① 가봉

6권의 가봉 교과서 중 11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인구밀도, 1,2,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의 통계 오류(5건)이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하였거나(3건), 한반도가 몽골제국의 영토로 표시되고(1건), 한국의 종교가 중국불교, 유교, 도교로(1건) 잘못 표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 분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과 경기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음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표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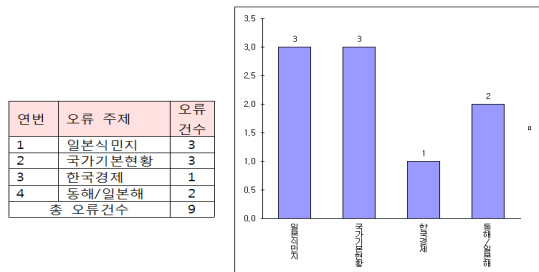
표 73. 가봉 오류 건수 및 차트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4권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교과서 중 9건의 오류가 있다. 일본식민지 연대 오류(3건), 대한민국의 발전부분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자본을 투자했다는 한국의 국가기본현황 및 경제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 있다.<표 74> 국가기본현황, 일본식민지, 경제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오류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74.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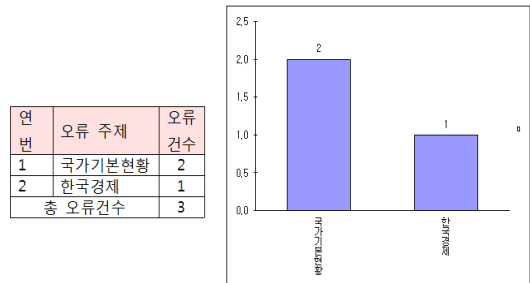


③ 레바논

2권의 레바논 교과서 중 3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 중 한국의 최신 인간개발지수가 업데이트 될 필요

가 있으며, 한국경제에서 한국자동차 1인당 인구수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표 75> 국가기본현황, 한국경제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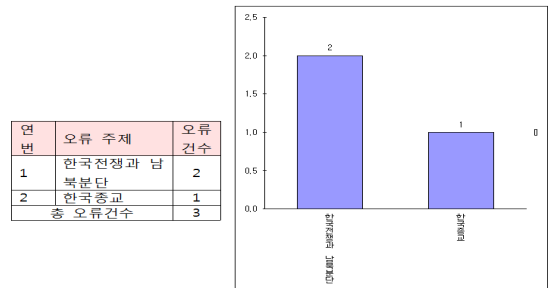
표 75. 레바논 오류 건수 및 차트



④ 세네갈

1권의 교과서 중 3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전쟁을 한국의 반미전쟁으로 기록하거나 휴전선을 38선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의 종교를 불교로 표시하였다.<표 76> 한국전쟁에 관한 정확한 자료전달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한국을 바로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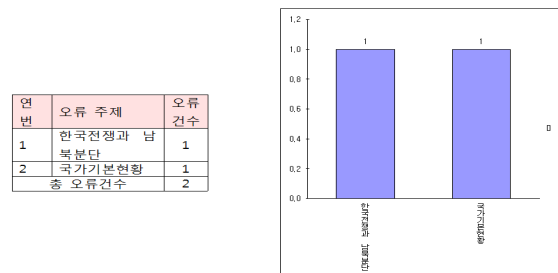
표 76. 세네갈 오류 건수 및 차트



⑤ 알제리

2권의 교과서 중 2건의 오류가 있다. 휴전협정과 관련된 한국전쟁 내용 오류와 서울의 인구와 관련된 통계 오류가 있다.<표 77> 국가기본현황자료와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한국을 바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인다.

표 77. 알제리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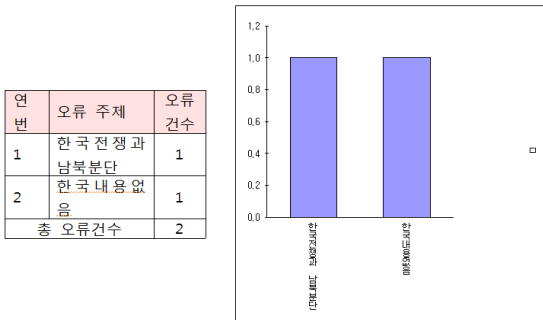


⑥ 에티오피아

2권의 에티오피아 교과서에서 2건의 오류가 있다. 11학년 역사교과서는 에티오피아 및 세계 고대 및 중근세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기원전 상(商)왕조부터 전국시대까지의 역사와 유교의 형성을, 수 왕조부터 명·청 왕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6페이지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일본에 관해서도 5세기 후반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역사를 3페이지를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106] 동아시아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대와 관련된 한·중·일의 균형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12학년 역사교과서는 에티오피아 및 세계근현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변동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 팽창과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국제연맹 탈퇴, 진주만 공격 그리고 패전 등 4페이지에 걸쳐 이들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둘러싼 사건들을 4페이지를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언급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참전에 관점을 둔 내용으로 단순히 한국전쟁이라는 사건명과 국명이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107] 동아시아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중·일의 균형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다. <표 78>

표 78. 에티오피아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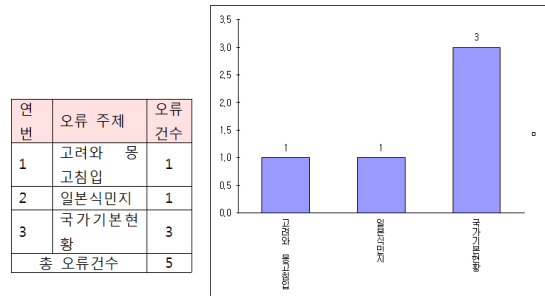


⑦ 예멘

4권의 예멘 교과서 중 5건의 오류가 있다. 예멘 교과서에는 몽골이 고려를 침입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몽골의 한국침략연대가 1231년이 아닌 1219년으로 잘못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려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가기

본현황으로 인구분포, 강수량, 인간개발지수 등의 통계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일본식민지가 아닌 영국식민지로 잘못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표 79> 국가기본현황 자료 전달 및 몽고침입기록과 일본식민지 기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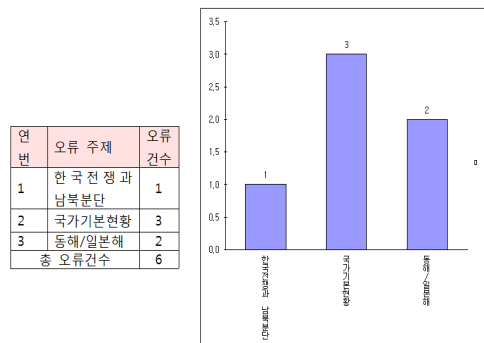
표 79. 예멘 오류 건수 및 차트



⑧ 요르단

1권의 요르단 교과서에 6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휴전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1건), 국가기본현황에서 제주도가 누락되거나 인구 300만 이상의 도시에 서울이 빠져있고 세계의 원자력에너지 설명에서 한국의 원자로수가 20기가 아닌 11기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2건)되었다.<표 80>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전달해야 하고,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오류시정 활동을 전개한다.

표 80. 요르단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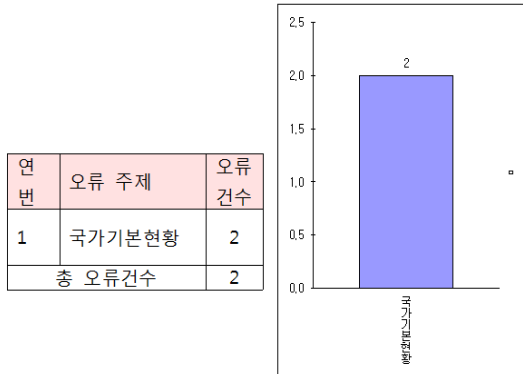


⑨ 이라크

2권의 이라크 교과서 중 2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한국은 주로 우유, 육류, 가축을 생산한다는 잘못된 기술이 있으며,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잘못 분류되어 있다.<표 81> 국가기본현황이 잘못 알려져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을 바로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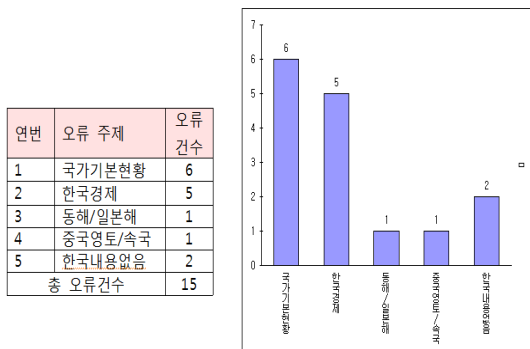
표 81. 이라크 오류 건수 및 차트



⑩ 이란

6권의 이란 교과서 중 15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기후, 1인당 GNP, 인간개발지수, 백만명 이상의 도시분포 통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6건), 한국경제에 대하여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의 일원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고 반면 일본과 중국은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산업에 관한 추가 서술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 타진이 필요하다. 세계역사 교과서[108]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미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설명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당시 아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당시 한국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며, 냉전에 관해서 연합국 측의 입장에 관해서만 서술되고 있으나 냉전의 일환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 서술을 통해 당시 아시아 정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표 82> 국가기본현황 및 한국경제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전달하고, 한국내용이 없는 교과서에는 한국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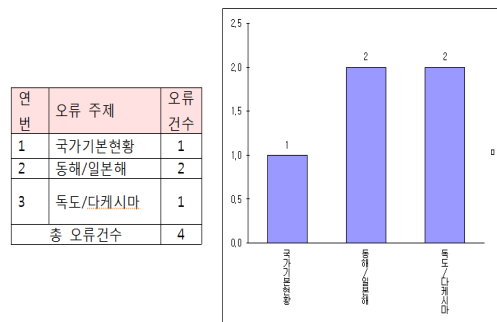
표 82. 이란 오류 건수 및 차트



⑪ 이스라엘

4권의 이스라엘 교과서에 4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으며(2건), 독도도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1건). 또한 국가기본현황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98%와 2%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98%, 2%로 고쳐져야 한다.<표 83> 다케시마를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는 시정노력과 한국의 국가기본현황을 전달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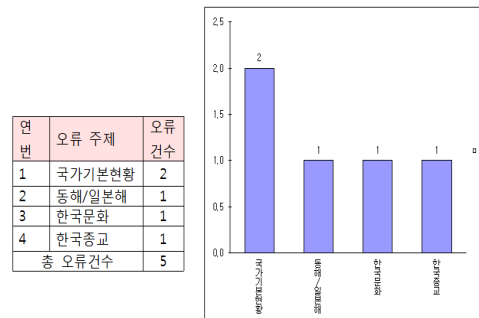
표 83. 이스라엘 오류 건수 및 차트



⑫ 이집트

1권의 이집트 교과서에 5건의 오류가 있다. 국가기본현황으로 부산을 누산으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국의 식생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의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잘못 기술되어 있고, 한국문화로 어른에게 공경하고, 부모님께 복종하며,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주식인 쌀을 먹으며, 나무젓가락 사용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 소개가 필요하다.<표 84>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한국문화, 종교 등에 관하여 잘못된 서술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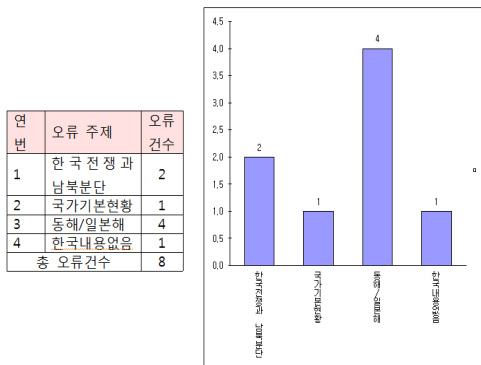
표 84. 이집트 오류 건수 및 차트



⑬ 카메룬

9권의 카메룬 교과서 중 8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4건)하였고, 분단된 한반도 내용이 수정서술되어야 한다(2건). 또한 일본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이승만라인을 언급하였는데, ‘한국정부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일본어업활동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역사과목의 아시아를 다루는 장[109]에서 중국과 일본은 있으나, 한국은 빠져있으므로 한국내용을 신설해야 한다.<표 85> 최신 국가기본현황 자료와 한국전쟁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한국을 바로 알려야 한다.

표 85. 카메룬 오류 건수 및 차트



⑭ 케냐

13권의 케냐 교과서 중 15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6건)가 가장 많고 세계의 공업을 다루면서 한국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인도의 가내공업, 독일의 철강산업,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 및 전자산업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산업, IT산업,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들어 한국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5건)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빈국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식민지 연대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표 86>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한국경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 오류시정 노력을 기울인다.

⑮ 코트디부아르

2권의 코트디부아르 교과서 중 3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으며(2건), 한국의 인구밀도 등 국가기본현황이 제대로 수정되어야 한다.<표 87> 최신 국가기본현황을 작성하여 한국이 바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표 86. 케냐 오류 건수 및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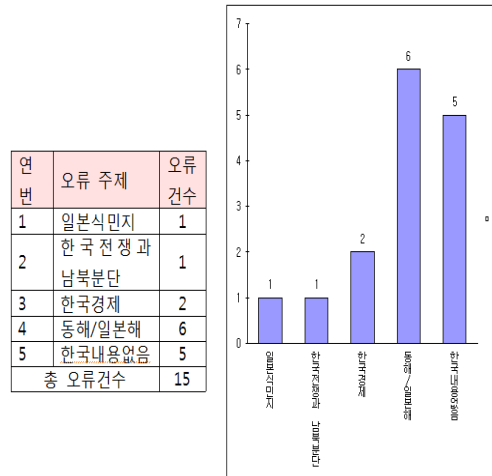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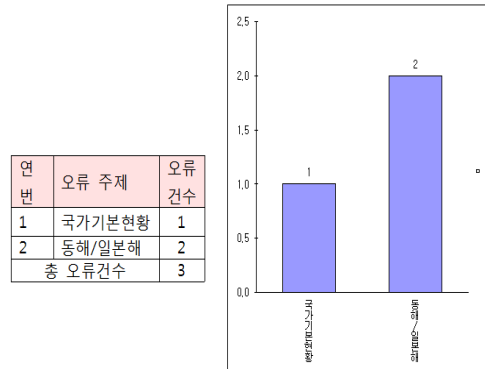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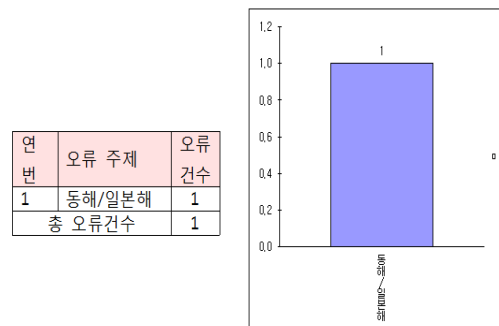
표 87. 코트디부아르 오류 건수 및 차트



⑯ 쿠웨이트

1권의 쿠웨이트 교과서 중 1건의 오류가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해 또는 동해(일본해)로 병기해야 한다.<표 88> 한국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한국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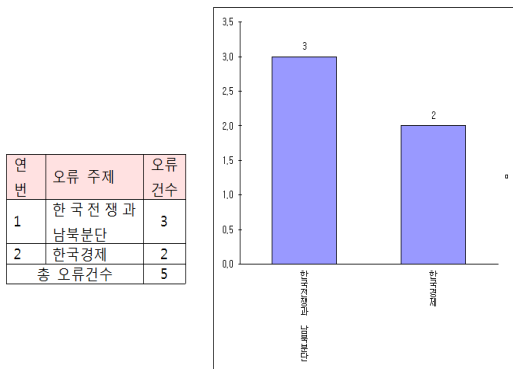
표 88. 쿠웨이트 오류 건수 및 차트



⑩ 튀니지

5권의 튀니지 교과서 중 5건의 오류가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소련군과 미군의 철수 연대 오류 및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중 부산을 비잔으로 잘못 표기하였다(3건).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선진국이 주로 분포하는 북반구에 한국이 분류되어야 하나 현재 남반구에 분류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2건). <표 89> 한국전쟁과 한국경제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이 바로 알려지도록 노력한다.

표 89. 튀니지 오류 건수 및 차트



아프리카중동에서는 한국에 대한 오류가 매우 적으나,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한국경제 등 한국에 관하여 꼭 수록되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프리카중동의 경우 한국을 바로 알리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4. 한국바로알리기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0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 주제, 유형, 분야, 시대, 국가별로 재분석하여 총체적인 틀에서의 오류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번 연구를 통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외국교과서에 수록된 국가기본현황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매년 한국기본정보를 해외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국가기본현황으로 외국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차 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GDP, 기대수명, HDI, 강수량, 기후, 국가공식명칭, 면적, 행정구역, 수도, 통화, 해방일, 국경일, 민족, 주요도시, 주요수출품목, 종교, 공식언어, 관광객수, 관광자원, 유네스코유산, 광물자원, 인구밀도, 환율, 주요경작물, 주요산업, 국제기구가입현황, 한반도위치, 지형, 식물, 동물, 남북구분선, 다국적기업수, 도시거주율, 도시분포, 도시인구, 문맹률, 근로자직종, 여행팁, 물공급현황, 산업구성, 생산품, 서울인구, 출생율, 사망률,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정부형태, 영양섭취, 안전한 식수인구비율, 의료비, 이민자수, 이주민,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민시스템, 인간개발지수, 취학율, 학업성취도, 항공노선, 해안선길이, 행정구역구성

- ② 외국 교과서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한국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오류 유형, 시대, 분야별로 수록되었는지, 누락 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각국의 교과서에 한국내용의 오류가 수정되고, 신설, 증설되도록 해야 한다.<표 90>

표 90. 주제, 오류유형, 시대, 분야 분류별 체크리스트

주제	오류 유형	시대	분야
고조선/단군	객관적내용오류	선사	지리
삼국시대	단순표기오류	삼국	정치사회
고려와 몽고침입	역사왜곡	고려	경제산업
조선과 임진왜란	통계오류	조선	과학
일본식민지	연도오류	근대	교육연론출판
광복후 남북한	일본해표기	현대	언어문학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다케시마표기	통시대	역사
국가기본현황	증설필요		예술체육문화
현대정치	신설필요		의식주생활
한국경제			종교철학
한국문화			
한국종교			
중국영토/속국			
동해/일본해			
독도/다케시마			
한국내용없음			

③ 외국 교과서에 한국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내용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내용을 추출하여 외국 교과서에 수록할 한국내용 표준안을 제시한다. 외국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내용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독립, 한국전쟁, 한국어, 한글, 개성, 한글날, 한성, 한중일관계, 휴대폰, 38선, IMF, OECD 강화도조약,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몽고침입, 조선, 단군, 광양, 기독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선거, 김일성, 김정일, 냉전, 한국분단, 독재정권, 동의보감, 허준, 아시아의 7마리 용, 민주주의, 백남준, 불교, 서울, 대구, 부산, 평양, 세종대왕, 임진왜란, 대한민국건립, 한국음식, 쌀, 젓가락, 어른공경, 외교관계, 유교문화, 이승만, 대통령선거, 인쇄술, 일본식민지, 조선백자, 현대, 조선업, 통일, 카이로선언, 판문점, 태권도, 평화협정, 한일합방, 이자겸 등

④ 국가별 맞춤형 한국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앞서 국가별 오류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수록되지 않은 한국내용이 있다면 증신설해야 하고,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그 나라와 관련있는 내용들이 수록될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형 한국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⑤ 분석업무를 위한 역사, 정치, 경제 등의 전공자 필요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외국어전공자들이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는 외국어 전공자가 있어야 함이 필수이다. 그러나 또한 한국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오류를 집어내고, 필요한 내용을 증신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전공 뿐만 아니라 역사를 필두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전공자가 필요하다.

⑥ 한국바로알리기 아카데미 개설이 필요하다.

전세계 197개국의 외국 교과서 분석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수 7-8명의 연구원이 1인당 20-30개국을 분석해 내는 것은 업무 과중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까지는 내부 연구원 중심으로 진행해왔으나, 향후 교과서 분석 노하우를 유형화하여 매년 현지의 외국교과서분석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 또

는 해외 현지에서의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교과서 분석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⑦ 현지 교사들이 현지어로 직접 쓰는 'E-Korean History and Culture'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년 10여개 국가 교사가 한국내용을 인터넷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민간단체 및 교사를 지원하여 현지 교사 및 출판사가 한국내용을 현지어로 인터넷에 담아내는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 민간집필자를 공모하여 한국내용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담도록 하여, 국가별 한국내용 사이트를 구축해나간다. 최종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이트를 오픈한다. 매년 10개국 정도를 지원하여 10여년 플랜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의 한국내용을 현지 교사가 쓴다면 보다 신빙성있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때 전 세계에 E-Korean Textbook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⑧ 교과서 분석을 위한 표준 용어집, 연표가 필요하다. 각국에서 쓰는 한국관련 내용의 용어, 연도 등이 제각각이며, 이를 통일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급히 용어집, 연표 등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⑨ 각국의 교과서제도, 교육제도 등의 기본 교육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국 교과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국의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때 특히 한국의 교육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고, 또한 양국간의 이해를 위하여 상대국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제도, 교과서제도를 연구하여 교육정보 구축이 시급하다.

⑩ 외국 교과서 내 중국, 일본 내용 검토를 통한 한국 내용의 수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외국 교과서 내 중국, 일본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한국관련 오류 및 증신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재 외국 교과서에 중국, 일본은 10여페이지 이상 서술되어 있다면, 한국은 1페이지도 안되는 수록 분량이므로 중국, 일본의 서술내용을 분석하여

한국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⑪ 저작권을 확보한 한국내용 멀티미디어 사이트를 구축하여 외국 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출판사들은 각국의 외교부사이트나 에이전시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를 구입한다. 한국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내용 멀티미디어를 구축하여 이들 외국 교사 및 출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한국내용이 풍부하게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⑫ 각국의 교과서 수록 내용 분석 검토를 통한 전문가 초청연수 전략을 구상한다.

외국 교과서에 한국전쟁이 수록되어 있으면 남북관계 강의, 식생 지리 내용이 많으면 지리강의 등 매 국가마다의 한국바로알리는 특별전략을 구상하여 우선 친근한 한국내용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면서 차츰 더 깊은 한국내용을 소개한다. 우선적으로 외국 교과서내의 한국 관련 내용 구성을 분석하여 여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⑬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분야별로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는 꽤 많다. 민간으로부터 학계, 관으로 까지 다양한 성격을 갖고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영향력이 있으나, 또한 사안발생시 각 기관들이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한국바로알리기를 총괄하는 재단 설립을 통해 의견과 매 사안들이 한곳에서 고민되고 해결될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앞으로의 과제들 이외에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의 방향과 과제를 위에 제시하였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과제들이 실제 향후에 수행되어 내년이후에는 더욱 발전된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결론

이 논문은 매년 추진해오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외국 교과서 분석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향후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논문의 분야별 오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별 오류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의 국가기본통계 및 현황을 잘못 기술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많이 기술되었으나, 통계 및 현황이 잘못 기술된 경우,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한반도가 중국영토이거나 중국속국이라는 내용, 일본식민지에 대해 잘못된 기술이 많았다. 그 외 중국, 일본은 기술되어 있으나 한국내용이 기술이 안 되어 한국내용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고, 한국의 종교에 대해 잘못 기술된 경우, 광복후 남북한에 대한 내용 오류, 한국문화내용 오류 등 다양한 오류가 있었다.

유형별 오류에서는 객관적 내용 오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해표기, 통계오류, 역사왜곡, 한국내용증설 필요, 단순표기오류, 한국내용신설필요, 연도오류, 다케시마표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오류는 현대가 가장 많고 근대, 조선, 고려, 선사, 삼국의 순이었다.

분야별 오류는 지리가 가장 많고, 경제산업, 정치사회, 역사, 종교철학, 예술체육문화, 과학, 언어문학, 의식주생활, 교육언론출판의 순으로 오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총 분석대상 80개국의 오류를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기술하거나, 국가 기본현황이 잘못 기술되어 있고, 대만과 홍콩의 교과서에는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이거나 속국으로 기술된 점이 많아 이를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는 한국경제, 한국전쟁에 관련된 오류와 국가기본현황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뉴질랜드, 호주 등의 일부 교과서에는 중국, 일본은 수록되어 있으나, 한국이 수록되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어 한국내용 수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미국가(미국, 캐나다)의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한 점이 가장 많고,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였거나 중국속국으로의 기록이 많았다. 이는 중국의 역사관이 그대로

미국, 캐나다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인데,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고, 중국속국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미국, 캐나다 교과서 집필 및 출판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이 제대로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본현황 즉 인구, 면적, 강수량, 인간개발지수 등의 오류가 많은데, 매년 국가기본정보는 최신자료로 작성하여 해외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에서 적지 즉 금속인쇄술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라고 했다면, 이는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 최초이므로, 이를 적극 세계에 홍보해야 한다.

중남미의 경우에는 오류가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는 역사시대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시대의 한국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시대의 한국내용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좀더 치밀하게 한국바로알리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인 인구, 면적, 강수량 등의 통계 등 정확한 정보가 중남미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년 최신자료를 작성하여 중남미 각국의 교과서 출판사에 보내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의 오류는 거의 일본식민지시대 이후부터 현대의 국가현황 및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에서 보이고, 과거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에 이르는 역사시대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역사시대의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사시대의 자료들을 유럽지역에 전달하여 한국내용이 고루 수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에서도 오류가 매우 적으나,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식민지, 한국전쟁, 한국경제 등 한국에 관하여 꼭 수록되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프리카중동지역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바로알리기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국가기본현황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매년 한국기본정보를 해외에 제시

- . 외국 교과서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 외국 교과서에 수록할 한국내용 표준안 마련
- . 국가별 맞춤형 한국자료 개발
- . 분석업무를 위하여 외국어전공자외의 역사, 정치, 경제 전공자 필요
- . 한국바로알리기 아카데미 개설 필요
- . 현지 교사들이 현지어로 작성한 'E-Korean History and Culture' 사이트 개설 필요
- . 교과서 분석을 위한 표준 용어집, 연표 필요
- . 각국 교과서제도, 교육제도 등 각국의 교육정보 구축 필요
- . 외국 교과서 내 중국, 일본 내용 검토를 통한 한국내용 수록 방향 제시
- . 교과서 집필자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확보한 한국 관련 멀티미디어 사이트 구축 필요
- . 외국 교과서 수록 내용 분석 검토를 통한 전문가 초청연수 전략 구상
- . 한국바로알리기 총괄 재단 설립 필요

4차 산업혁명은 당해 년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석하던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내용을 이제는 전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한국바로알리기의 사업 영역을 분야별로 나누고,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는 더욱 그동안 축적된 한국바로알리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교과서분석보고서』, 국제교과서도서관, 2008-2014.
- [2] 『Asian Civilization-History and Culture』, ibal Publishing House, 2005, pp.137-139.
- [3] 『Robert W. Strayer, 『Ways of the World: A Brief Global History, Volume 1: To 1500』, Bedford/St. Martins, 2009, p.253.
- [4] William J. Duiker, 『World History Volume 1: To 1800, 7th Edition』, 2012, p.319.
- [5] 압둘마지드 갈립 알-마클라키 외, 『역사(아랍이슬람문명)2』, 교육부, 2011, p.89.
- [6] William J. Duiker, 『World History Volume 2: Since 1500, 7th Edition』, 2012, p.653.

- [7] Malani Endegama 외, 『History part1, Grade 11』, 2012, p.109.
- [8] Fabio Vladimir Sánchez 외, 『ZonActiva Sociales 10(활동영역 사회 10)』, 2010, p.68.
- [9] William J. Duiker, 『World History Volume 2: Since 1500, 7th Edition』, 2012, p.656.
- [10] 『현대세계』, 아스트라다, 2008, p.102.
- [11] Carolina Mendoza Peñuela 외, 『Mundo Ciencias Sociales 9(세계 사회과학 9)』, SM, 2010, p.167.
- [12] 『역사; 중학교1-2학년』, 교육출판사, 2008, pp.19-20.
- [13] Giacomo Ardito, Marina Carta, Luca De Marco, 『Il Mondo Possibile(가능한 세상)』, 2008, p.434.
- [14] 『Mastering Modern World History』, Macmillan, 2009, p.146.
- [15] Ramiro Colindres Ortega 외, 『Ciencia Sociales 9(사회과학 9)』, 2010, p.65.
- [16] 『Voyage: Geography for the Middle School. Class 8』, Oxford, 2010, p.100.
- [17] 『Zgodovinski Atlas za osnovno šolo, koraki v času』, 2012, p.52.
- [18] 蘇淑娟 외, 『地理 第二冊』, 2013, p.123.
- [19] 『세계사(Всемирная Игтория)』, 맥텡, 2007, p.84.
- [20] A. A. Кредер, 『Новей шая история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9 (해외의 최신역사 9)』, 2006, p.342.
- [21] Luisa Morelli, Stefano Beccastrini, Diana De Lorenzi, 『GEOVIAGGI 3 - Mondo: Paesaggi, popolazione, economia, gli stati(지리여행 3-세계: 풍경, 인구, 경제, 국가들)』, Mursia Scuola, 2007, p.71.
- [22] Paluina Latapí 외, 『Geografía 1º de México y del Mundo-Ser en la Tierra (멕시코와 세계지리1 - 지구 속의 존재)』, 2009, p.280.
- [23] Alois Müller 외, 『ganz klar-Geografie 4』, Jugend & Volk, 2008, p.121.
- [24] Robert W. Strayer, 『Ways of the World: A Brief Global History, Volume 1: To 1500』, 2009, p.258.
- [25] 크리스티마 타빙 외, 『아시아 문명 & 문명』, IBON 북스, 2007, p.19.
- [26] Fabio Vladimir Sánchez Calderón 외, 『Nuevo Latitudes Geografía human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09, p.73.
- [27] Manuel Andrés García Escobar 외, 『Atlas Mundial Norm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11, p.36.
- [28] Jean-Michel LAMBIN 외, 『Histoire T』, 2009, p.56.
- [29] Warren Matthews, 『World Religions』, 2010, p.2
- [30] Fion Coward 외, 『Smithsonian Timelines of History』, DK Publishing, 2011, p.215.
- [31] Jari Aalto 외, 『Kaikkien aikojen historia 6, Kulttuurien kohtaaminen』, Edita, 2011, p.121.
- [32] Marilyn Stokstad, 『Art History, 5th Edition』, 2014, p.333.
- [33] 『Haack Weltatlas - Atlas mit CD-Rom』, 2007, p.144.
- [34] 모세 브라베르, 『아틀라스』, 2013, p.40.
- [35] Malani Endegama 외, 『History part1, Grade 11』, 2012.
- [36] E. B. Агибалова, Г. М. Донский, 『История Средних веков. 6(중세사 6)』, 2012.
- [37] 『사회학습1: 세계지리, 현대이집트사 학습』, 이집트교육부, 2008-2009, p.44.
- [38] 『Modern World(History)』, Maharashtra State Board of Secondary and Higher Secondary Education, 2009, p.103.
- [39] 『Nuovi Profili Storici 3 - Dal 1900 a oggi』, Editori Laterza, 2008, p.878.
- [40] A. B. Шубин,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 Новей шая история』, 2013, p.312.
- [41] Paluina Latapí 외, 『Geografía 1º de México y del Mundo-Ser en la Tierra』, McGrawHill, 2009, p.280.
- [42] 『Voyage: Geography for the Middle School. Class 8』, Oxford, 2010, pp.97-98.
- [43] 호세리토 N. 포르니에 외, 『아시아 역사, 문명, 문화』, 안빌 퍼블리싱, 2007, p.89.
- [44] 林能土 외, 『歴史』, 南一書局, 2012, p.73.
- [45] 『역사』, 교육출판사, 2008, P.49.
- [46] 林能土 외, 『歴史 2』, 南一書局, 2012, p.119.
- [47] 『GEOVIAGGI 3』, Mursia Scuola, 2007, p.71.
- [48] H. B. Загладин,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 Новей шая история XX - начало XXI века』, 2013, p.239.
- [49] Heidi Hayes Jacobs, Michal L. LeVasseur, Kate Kinsella, Kevin Feldman, 『World Studies: The Ancient World』, Pearson Prentice Hall, 2008, p.137.
- [50] Fion Coward 외, 『Smithsonian Timelines of History』, DK Publishing, 2011, p.215.
- [51] 『World History : Connections to Today』, Pearson Education (Prentice Hall), 2003, p.314.
- [52] Elena Cabezalí García 외, 『Historia del mundo contemporáneo』, 2011, p.15n
- [53] 『School Atlas』, Navneet, 2009, p.49.
- [54] Maria Carazzi, Luisella Pizzetti, 『GeoLAB 3 - I continenti e gli stati del mondo』, Edizioni Scolastiche Bruno Mondadori, 2011, p.74.
- [55] 사미 알리 샴짜니 외, 『지리: 인간과 환경』, 교육부, 2013, p.99.
- [56] Joaquín Prats Cuevas 외, 『Historia del mundo contemporáneo』, 2013, p.420.
- [57] Fion Coward 외, 『Smithsonian Timelines of History』, DK Publishing, 2011, p.121.
- [58] Elizabeth Gil de Solís, 『HISTORIA Moderna y

- postmoderna 10^o」, Susaeta, p.224.
- [59] 薛化元 외, 『歴史 제2권』, 三民書局, 2013, p.130.
- [60] Beatriz Palomo de Lewin, 『El mundo Ayer y Hoy』, Piedra Santa, 2009. p.273.
- [61] O. B. Волобуев, M. B. Пономарев, B. A. Рогожкин,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 XX-начало XXI века(세계사 : 20-21세기 초)』, 2014, 지도부록.
- [62] William M. Marsh, 『Physical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576.
- [63] 『Haack Weltatlas - Atlas mit CD-Rom』, Klett-Perthes, 2007, p.144.
- [64] 모세 브라퀘르, 『아틀라스』, 2013, p.40
- [65] Milan Hlavačka 외, 『DĚJEPIS pro gymnázia a střední školy 3 - novověk』, SPN, 2008.
- [66] N. Dharmasena 외, 『Geography 10』, Sasthrodaya Graphics, 2007.
- [67] John T. Rourk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world stage』, 2008, p.246.
- [68] Dennis DesRivieres, 『Human geography 8』, Pearson education Canada, 2008.
- [69] Manuel Andrés García Escobar 외, 『Atlas Mundial Norm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11, p.24
- [70] Raj Narayan Yadav 외, 『Social Studies 6』, 2012.
- [71] Željko Brdal 외, 『Tragom prošlosti 6 Udžbenik povijest za šesti razred osnovne škole』, 2009.
- [72] Patrick O'Brien, 『Atlas of World History』, Oxford, 2007, pp.52-53.
- [73] 『Kursbuch Geschichte - Neubearbeitung.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2009, p.54.
- [74] Marilyn Stokstad, 『Art History, 5th Edition』, 2014, p.527.
- [75] Dalila Ferro González 외, 『ATLAS PLANETA AZUL - Geografía e historia visualizada』, MIGEMA, 2012, p.285.
- [76] Cecilia Mejía, 『Historia, Geografía y Economía 3 (역사, 지리와 경제 3)』, 2009, p.87.
- [77] Robert W. Strayer, 『Ways of the World: A Brief Global History, Volume 2: Since 1500』, Bedford/St. Martins, 2009, p.422.
- [78] José Manuel Fernández Ros 외, 『Historia del mundo contemporáneo』, 2008, p.248.
- [79] Bjørn Ingvaldsen 외, 『Makt og menneske- Historie 1 0』, 2012, p.78.
- [80] Claudia Sierra Campuzano, 『Historia 1 (역사 1)』, 2008, p.220.
- [81] 『Atlas sveta za osnovne in srednje šole』, 2014, p.181.
- [82] P. P. Каирбекова, С. В. Тимченко,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세계사)』, 2014, 지도부록.
- [83] Jorge Alberto Cote Rodríguez 외, 『Los Caminos del Saber, Sociales 9』, 2013, p.62.
- [84] 『Sosyal Bilgiler 6』, Kelebek Matbaacılık, 2007, p.65.
- [85] Carlos Oswaldo Aburto Cotrina, 『Historia, Geografía y Economía 4』, Norma, 2009, p.144.
- [86] William J. Duiker, 『World History Volume 2: Since 1500, 7th Edition』, 2012, p.919.
- [87] Manuel Andrés García Escobar 외, 『Atlas Mundial Norm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11, p.30.
- [88] 『Collins Atlas of Global Issues: A Visual Guide to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Collins, 2007, p.128.
- [89] 『Pocket World Atla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60.
- [90] Manuel Andrés García Escobar 외, 『Atlas Mundial Norm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11, p.29.
- [91] John T. Rourk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world stage』, 2008, p.246.
- [92] Gabrijela Škraba 외, 『Spoznavajmo zgodovino, zgodovina za 6. razred osnovne šole』, 2008.
- [93] 티라 닷빼얌 외, 『사회, 종교 및 문화』, MAC Press, 2010, p.88.
- [94] Fabio Vladimir Sánchez Calderón 외, 『Nuevo Latitudes Geografía humana general y de Colombia』, Norma, 2009, p.72.
- [95] 『Contemporary's World History』, Wright Group/McGraw-Hill, 2006, p.172.
- [96] 『新理念 中國歷史』, 홍콩교육도서공사, 2008, p.148.
- [97] Augusto Montenegro González, 『Historia del Antiguo continente』, 2009, p.136.
- [98] 『World Geography and Cultures』, Pearson AGS Globe, 2008, p.533.
- [99] Н. В. Загладин и др., 『Истори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 a 11』, 2007, p.449.
- [100] Leonor R. de Avendaño, 『Sociedad y yo 6』, Piedra Santa, 2010, p.190.
- [101] 닷타랏 리아우파이룻, 『시민의 역할, 문화와 사회생활』, 서꺼서꺼 랏프라우, 2011, p.32.
- [102] Warren Matthews, 『World Religions』, 2010, p.2.
- [103] 『School Atlas』, Navneet, 2009, p.49.
- [104] 『World History, Volume Two : The Easy Way-AD 1500 to the Present』, Barron's Educaional Series, Inc., 1997, p.161.
- [105] Miyase KOYUNCU KAYA 외, 『Sosyal Bilgiler 2권』, DERGAH OFSET, 2012.
- [106] Wondu Teklemadhin 외, 『History 11』, Kuraz International Publisher and Educational Works Consultant, 2007.
- [107] Fekadu Begna 외, 『History 12』, Kuraz International

- Publisher and Educational Works Consultant, 2007.
- [108] Mohammad Ali Alavikia 외, 『이란과 세계역사 2』, 2013, pp.84-91.
- [109] 디바인 N 외, 『An Illustrated History』, 2012, p.493.
- [110] 조용환·김희목·이찬희,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연구의 종합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1990.
- [111] 손용택, 정영순,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3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9.
- [112] 손용택,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과서 연구: 성찰과 전망』, 『사회과교육』48(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9.
- [113] 안지영, 박소영, 정재윤,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정신문화연구』3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114] 안지영, 『동남아시아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 『사회과교육연구』제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 [115] 박소영, 『아랍권국가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인식』, 『사회과교육연구』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저 자 소 개

● 정 경 란(Kyung Rhan Chung)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악과(학사)
- 1998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석사)
- 2011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 고려 및 조선시대 음악학, 지역문화 및 전통식품 콘텐츠개발, 한국바로알리기